도서명: 암흑검사2

지은이: 초연

출판사: 연담L

출판년월일: 2019년 10월 30일

봉사자: 조흔지

<지은이소개/초연>

작가 초연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개성 넘치는 캐릭터, 몰입도 높은 스토리 전개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작가는 동시에 여러 편의 수작을 선보이며, 혜성과 같이 등장했는데, 그 성과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암흑검사』로 카카오페이지 추미스 소설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야(夜)한 밤의 레이디오국』은 네이버 웹소설에 정식 연재되어 인기리에 연재 중이다. 『아빠가 된 아이돌』은 웹소설로 먼저 출시되어 네이버 시리즈에서 로맨스 분야 2위까지 올랐다. 이 작품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곧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원티드: 비밀남녀』는 책으로 먼저 출간되는 로맨스 소설로, 전직 아이돌 스타였던 계약직 구청 공무원과 아이돌 스타의 매니저가 TV 구애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 진정한 사랑에 이르는 과정을 작가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스타일로 보여준다.  
대중문화에서 권력에 눈먼 ‘악의 화신’, 아니면 완전무결한 ‘정의의 사도’로만 그려지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암흑검사』를 쓰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감정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검사들의 모습을 말이다. CJ ENM과 카카오페이지가 주최하는 제2회 추미스(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심신미약 감형 문제, 소시오패스 범죄 등 묵직한 주제를 흡입력 있는 문체로 현실감 있게 풀어냈다는 심사위원들의 평을 받았다. 서로 앙숙이던 검사와 피고인이 운명적인 사건에 휘말리면서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실감나게 그려냄으로써 사회성과 흥미를 동시에 잡았다.  
저자는 현재 대한민국 검사로 일하며 틈틈이 글을 쓰고 있다.

<소개글, 서평>

『암흑검사』는 온 사회를 분노로 들끓게 한 13세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검사와 피고인, 대중과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그려내며 카카오페이지와 CJ ENM이 주최한 제2회 추미스 소설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200여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에도 압도적인 몰입감과 현실감 있는 디테일, 각 인물들의 세밀한 심리묘사로 심사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승승장구하던 검사가 어느 날 의문의 테러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앙숙이던 피고인과 함께 아직 끝나지 않은 1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이야기. 카카오페이지 연재 시 독자들로부터 “현실감 있는 스토리, 숨 막히는 심리 싸움, 머뭇거림 없는 전개,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극찬을 받으며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 『암흑검사』는 출간 전 영화화가 확정되어 조만간 영화로도 만날 수 있게 됐다.

@@p1

암흑검사2

@@p2

빈 면

@@p3

암흑검사2

초연 장편소설

연담L

@@p4

빈 면

@@p5

차례

4장 엄마 8

5장 전리품 186

6장 마지막 실험 422

@@p6

이 책을 읽기 전에

1. 소설 속의 인물, 사건, 지명 등은 모두 허구이며 실재하지 않습니다.
2. 수사기법과 수사기관의 기밀 유지 및 소설의 극적 재미를 위하여 실제 수사 현실과는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7

@@[4장 엄마

@@p8

@@{74

1년 전 9월 14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성암고등학교 매점.

“아줌마, 불닭볶음면 하나 주세요.”

소원은 컵라면에 물을 부어 가장 구석진 테이블로 갔다. 거의 열흘째, 급식을 먹지 않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 있지 않으려고 괜히 나와서 돌아다녔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면 꼭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싫었다. 그러나 친구들로부터 도망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게 차단되는 건 절대 아니었다.

* 평화한국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관리법, 이른바 ‘김별하 법’의 내용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갈리고 있는 가운데, 성암지방검찰청과 법원 앞에서는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범인 지모 군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규탄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매점 벽에 설치된 TV에서 오후 1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평소 같았다면 뉴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건 말건, 남자 고등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리 만무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관심사라고는 먹을 것, 게임, 여자 연예인, 동아리 활동, 입시뿐이었으니까. 그러나 오늘만큼

@@p9

은, 뉴스가 나오자마자 매점이 물을 끼얹은 것처럼 일제히 조용해지면서 TV로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 지모 군은 최근 성암대학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으며,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으나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책임자인 강한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변호인이 법정에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장을 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소원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면서 컵라면을 뒤적이는데, 서너 명의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니 소원이 앉은 테이블에 와서 앉았다. 다른 사람들을 피하려고 일부러 구석에 처박혔는데, 반갑지 않은 합석에 소원은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찡그렸다. 학생들은 과자 봉지와 콜라 캔을 테이블에 잔뜩 펼쳐놓더니 뉴스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수군대기 시작했다.

“야, 근데 솔직히 지온유가 정상은 아니지 않냐?”

여드름이 덕지덕지 난 남학생이 의아하다는 듯 말하자, 그 옆에서 과자를 우적대던 안경잡이 하나가 받아쳤다.

“정상이 아니니까 문제지, 개새끼야.”

“그게 뭔 개소리야, 씹새야.”

누가 들으면 싸우는 것 같겠지만, 매점 안에서는 누구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원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란 종족이 한 단어 건너 한 단어마다 욕이 나오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됐다. 안경잡이가 과자를 한 움큼 집어 들면서 아는 척을 했다.

“우리나라 법이 존나 이상해서 정상이면 유죄고 정상이 아니면 무죄라잖아.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새끼들을 정상이라고 해서라도

@@p10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고. 안 그러면 나도 웬 미친놈한테 걸려서 뒈지는 거 아닌가, 벌벌 떨면서 살아야 하잖아.”

잠자코 듣고 있던 소원은 뒷덜미가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발작 같은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확 치밀어올랐다.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불끈 움켜쥔 주먹이 테이블 한가운데를 쾅 소리 나게 내리쳤다. 한 입도 먹지 않은 컵라면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국물이 테이블을 온통 적시고 흘러내렸다.

“아, 씨발, 뭐야?”

졸지에 라면 국물 테러를 당한 남학생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면서 소리쳤다. 그러거나 말거나, 소원은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버렸다.

“저 씹새낀 왜 또 지랄이야?”

“뭔 놈의 학교에 미친놈들이 이렇게 많냐, 진짜. 쟤도 지온유랑 같은 임대 사는 놈 아니야?”

성큼성큼 걸어서 매점을 빠져나오는 소원의 등 뒤에서, 남학생들이 욕설 섞인 험담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매점 건물에서 왼쪽으로 가면 교실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운동장이 나왔다.

소원은 교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걸어갔다. 운동장 구석의 자전거 보관대에는 열흘 가까이 타지 않은 소원의 자전거가 체인에 묶여 세워져 있었다. 온유가 체포되어 끌려간 후, 소원은 온유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은 뭐든지 피하려고 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웠다. 변호사나 누군가와 얘기를 해본다거나, 면회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뭐가 옳은 건

@@p11

지 알 수가 없었다. 온유가 사람을 해치다니, 그것도 아무 잘못도 없는 연약한 어린 여자애를. 처음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듣고 있으니 자신의 확신에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다.

‘그날 밤 복도에서 봤던 온유의 모습은 확실히 이상했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 정말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걸까? 6년간 친하게 지냈던 나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자전거를 그대로 지나친 소원은 주머니에 양손을 꽂고 걸어갔다. 왠지 모르게 입에서 쓴맛 같은게 났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교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곳에는 소원이 처음 보는 낯선 여자 하나가 서성이고 있었다. 소원이 그녀의 앞을 그대로 지나쳐 가려는데, 조심스럽게 부르는 음성이 귓가에 와닿았다.

“류소원 학생?”

소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자를 대고 자른 것처럼 단정한 단발머리, 정갈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 산뜻한 감색 재킷 차림의 여자는 학부모라고 하기에는 조금 젊어 보였다. 그녀는 소원의 얼굴을 관찰하든 유심히 살피면서 다시 한번 물었다.

“류소원 학생 맞지?”

“맞는데요, 누구세요?”

소원이 경계심 어린 표정으로 되묻자, 여자는 그를 향해 악수를 청하듯 손을 내밀었다.

“난 윤지영 변호사라고 해. 온유의 국선변호를 맡고 있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p12

“교실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밖으로 나오는 거 보고 좀 놀랐어. 정말 학교에 다시 안 들어가 봐도 되니?”

지영은 큼지막하게 썬 샌드위치에 이쑤시개를 꽂아 소원의 앞으로 밀어주면서 상냥하게 물었다. 소원은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친절한 대우를 받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해서, 괜히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됐어요. 어차피 수업을 듣지도 않고 대학에도 안 갈 건데요. 그건 그렇고, 저한테 무슨 얘기가 듣고 싶으신 거예요?”

소원의 붙임성 없는 태도에도, 지영은 무안해하는 기색 없이 차분한 어조로 말을 꺼졌다.

“류소원 학생이 온유의 제일 친한 친구라고 들었어. 임대아파트에서도 바로 옆에 살고.”

사실 소원이 온유의 친구라는 사실은 둘만의 비밀이었다. 학교에서는 소원의 고집에 따라 서로 모른 척하고 다녔다. 아파트 안에서는 자주 어울려 다녔지만, 어차피 임대아파트 사람들은 다들 자기 먹고살기도 바빠서 누가 누구와 친한지는커녕 누가 자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도 잘 몰랐다. 소원은 의심스러운 듯 눈썹을 추켜올리면서 물었다.

“온유가 그래요? 우리가 친하다고?”

“응, 온유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

가장 좋아하는 사람. 그 말이 가시처럼 소원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만일 자기가 온유와 같은 입장에 있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

@@p13

었을까. 면회 한 번 오지 않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친구라는 것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친구’에 대해서.

“온유의 반 학생들에 대해서는 탐문이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 친하다고 하는 애는 한 명도 없더라고. 그래서 소원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소원은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모른 척 샌드위치 토막을 입에 넣었다. 두꺼운 빵을 한참 동안 씹으면서 시간을 끌다가, 지영의 눈치를 살피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저 그날 같이 있었어요. 온유랑.”

뜻밖의 고백을 들은 지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게 정말이니? 그런데 왜 경찰에 얘기하지 않았어?”

“내내 같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뭐지? 알리바이? 그게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온유한테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서요.”

소원은 다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웅얼거리듯 말했다. 형사들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지온유에 대해 아는 게 있는 사람을 찾아다닐 때 앞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도, 죽은 듯 조용히 있었던 것도 다 그것 때문이었다.

온유가 그날 ‘별이’를 만난다고 하면서 신나게 나간 얘기, 한밤중에 비에 흠뻑 젖은 채 돌아와 복도 벽에 머리를 찧으며 서 있었다는 것도. 그 누구에게도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온유가 수갑을 차고 법정에 서게 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다 쳐도, 소위 ‘관뚜껑 닫고 못 박는’ 짓을 자신이 하고 싶지는 않았다. 지영은 온화한 표정으로 달래듯 말했다.

@@p14

“나한테는 무슨 말이든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볼래?”

소원은 그 말을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한참이나 지영을 쳐다보았다. 그래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았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그래도 변호사라는데 믿어도 되지 않을까. 달리 믿을 사람도 없는데. 한참을 고민하던 소원은 머뭇머뭇 입을 열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학교 끝나고 나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소원이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데는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온유가 머리로 벽을 들이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지영은 잠시 흠칫했지만, 그 외에는 눈을 감고 팔짱을 낀 채 묵묵히 들었다. 마침내 소원의 말이 끝나자, 지영은 감았던 눈을 뜨면서 침착하게 물었다.

“온유가 집에서 나간 시각이 몇 시쯤이라고?”

“저녁 6시? 아마 그쯤 될 거예요. 잠깐만요.”

소원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온유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창을 열었다. 9월 1일 오후 5시 45분에 전송된 별하의 사진이 마지막이었다. 소원은 그 사진을 지영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이거 온유가 그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주면 좋겠다면서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만. 이걸 받은 게 5시 45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유는 조금 있다가 집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요.”

지영은 소원의 휴대전화에 띄워진 사진을 몇 초 동안 유심히 들여

@@p15

다보았다. 그러다가 뭔가에 생각이 미친 듯 혼자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소원에게 물었다.

“방금 한 그 말, 법정에서 그대로 해줄 수 있니?”

“이게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온유한테?”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그럴 거야. 자세한 건 국과수에 들러서 물어봐야겠지만. 그 사진도 절대 지우지 말고 법정에 가지고 가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저기 변호사님…… 그날 밤에 있었던 일도 그대로 말해요?”

소원은 지용의 눈치를 보면서 물었다. 온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 오후 이후로 온유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머리를 굴리거나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내는 건 소원의 특기 분야가 아니엇다. 지영은 그런 소원을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웃으면서 다짐하듯 말했다.

“넌 그냥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기만 하면 돼. 그걸 듣고 판단하는 건 재판부의 몫이니까.”

“……네.”

소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영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이 사람은 적어도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른들과는 다를 거라는 그런 믿음이. 지영은 문답이 끝난 후에도, 소원이 샌드위치를 다 먹고 주스를 다 마실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다. 그런 점도 소원의 마음에 들었다. 자기 볼일 끝났다고 휙 가버리지 않는 점이.

지영과 함께 베이커리 카페를 나오는 길, 소원은 내내 묻고 싶었던 걸 마침내 물어보았다.

@@p16

“변호사님은 온유가 결백하다는 걸 믿으시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현장에서 DNA랑 지문도 나왔다면서요.”

그건 사실 소원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은 아니었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도 이것이었을 것이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온유가 결백하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믿고 싶은데, 믿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소원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지영은 힘주어 말했다.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야, 누군가를 믿는 데는.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증거는 조작될 수도 잇고 오염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믿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거든.”

지영의 말이, 작지만 아주 단단한 돌처럼 소원의 가슴에 와서 박혔다.

@@p17

@@{75

11월 1일 목요일 저녁 7시. 소원의 집 앞.

“아 씨, 난 그냥 간다니까요. 형 혼자 얘기하시라고요. 진짜 싫다고요.”

소원은 굳게 닫혀 있는 문을 쳐다보면서 영 내키지 않는다는 듯 투덜거렸다. 지온유의 인간관계를 파헤치려는 강한의 수사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펼쳐졌다. 온유가 체포된 후, 즉 그의 수감 생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면회객 명단을 뽑아봤지만 나온 거라고는 변호인 접견 기록뿐이었다. 내부 생활에 대해서는 교도관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빨랐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 그러니까 소원의 아버지가 온유의 교도관이 된 것은. 소원의 아버지가 성암교도소 내에서 강력범 및 관찰대상 수용자를 전담하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다. 강한은 호시탐탐 빠져나갈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소원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단호하게 말했다.

@@p18

“가긴 어딜 가? 다른 사람 집도 아니고 너희 집인데. 애초에 널 활동보조인으로 들일 때부터 아버님께는 직접 말씀드리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많이 늦은 거지.”

“아니, 형이랑 나랑 결혼을 할 것도 아닌데 뭔 인사를 드려요. 미치겠네, 진짜.”

소원은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강한을 문 앞에 두고 혼자 떠나지는 못했다. 그 정도 책임감은 있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죽을상을 하고 있던 소원은 결국 미적미적 키패드를 켜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무뚝뚝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왔다.

“누구세요?”

“저예요, 소원이.”

“…….”

아들이 5주 만에 집에 왔는데 반응은 침묵이었다. 소원의 아버지는 예전 강한보다 더한 성격인 것 같았다. 소원은 그런 아버지에게 이골이 나 있는 듯, 아무 말 없이 강한의 손을 팔꿈치에 얹고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여기요.”

거실을 지나 부엌 앞에 선 소원은 강한의 어깨를 잡아 테이블 앞에 세워놓으면서 짤막하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예요’도 아니고, ‘인사하세요’도 아니고, 그냥 ‘여기요’였다. 난 지금 이 상황이 매우 못마땅하고 불편해 죽겠다는 나름의 항변이었지만, 강한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아까 목소리가 들렸던 방향을 대강 가늠해보고는 그쪽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성암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강한이라고 합니다.”

@@p19

“알고 있습니다, 검사님. 저 망나니 녀석을 데리고 사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 안 들으면 부담 없이 두들겨 패주십시오. 저는 소원이 애비 되는, 성암교도소 류성진 부이사관입니다.”

지극히 깍듯한 말이 돌아왔다. 강한은 성진이 자신보다 더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성진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는지, 고소한 밥 냄새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다. 오랫동안 숙이고 있던 허리를 마침내 편 성진이 아들을 힐끗 바라보면서 무심한 말투로 물었다.

“밥은 먹었냐?”

“……이따가 나가서 먹을 거예요.”

“검사님 몸도 불편하신데 뭘 굳이 나가서 먹어. 여기서 먹고 가.”

소원은 환자 취급받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강한이 사양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강한은 주시면 감사히 먹겠다는 암묵적인 의사를 드러내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딱히 밥을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면 성진에게서 좀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한 것이다. 결국 강한과 소원은 성진과 함께, 다소 어색하게 테이블에 둘러 앉게 되었다.

“차린 게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남자가 살림하는 게 다 그렇죠, 뭐.”

성진은 찌개와 반찬을 연달아 내오면서 송구스러워했다. 소원은 커다란 냄비에 통째로 담겨 있는 찌개를 보더니, 말없이 부엌으로 가서 빈 접시를 가져왔다. 그리고 강한이 편히 먹을 수 있도록 국을 떠서 옮겨 담은 다음, 그의 손 앞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아주면서 말했다.

@@p20

“형 기준으로 12시 방향에 밥이 있고요. 2시 방향에 찌개, 4시 방향에 두부조림, 9시 방향에 김치가 있어요. 찌개는 뜨거우니까 조금 식은 다음에 드세요.”

소원은 이미 백번 가까이 반복해서 이골이 난 과정이었지만, 성진은 그 모습을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자기 아들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기대치를 한껏 낮춰놓은 것에 비해 저녁 식사는 의외로 맛있었다. 햇반과 인스턴트 된장찌개를 데우고, 반찬가게에서 사온 반찬들을 담아놓은 것뿐이라는 걸 소원은 알았지만, 그래도 두 남자가 최근 먹었던 것들 중에서는 가장 집밥에 가장 가까운 형태였다. 성진은 소원이 한입 크기로 잘라놓은 두부조림을 강한이 젓가락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애엄마는 20년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원래도 몸이 약했는데, 분만 과정에서 양막 파열이 일어났어요.”

“아, 왜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그래요. 청승맞게.”

맥락에 맞지 않게 튀어나온 과거 얘기에 소원은 미간을 찡그렸지만, 성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열 살 때까지는 저희 어머님이 같이 있어주셨는데,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후엔 제가 혼자 애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가 사근사근한 면이 없어요. 다른 것도 다 부족하고요. 부디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아니, 뭘 너그럽게 봐줘요. 아부지야말로 복날에 개 패듯이 두들겨 패지나 말아요.”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강한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한층 진지해진 어조로 말했다.

@@p21

“사실 오늘 찾아뵌 건, 올해 3월까지 성암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형자에 대해 여쭤보기 위해섭니다.”

“지온유 말씀이시군요.”

성진은 강한이 문간에 나타날 때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듯 곧바로 말을 받았고, 강한은 얘기가 발라진 것에 안심하면서 곧바로 핵심 질문을 던졌다.

“아시다시피 연쇄 상해 사건 용의자가 지온유와 관계 있는 인물일 것으로 모두 추측하고 있고, 특히 살인 사건 전후의 인간관계를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온유가 수감 생활 중 특별히 가깝게 지낸 수형자라든가, 아니면 교도소 내의 누군가가 있습니까?”

“가깝게 지낸 사람…….”

성진은 잠시 먼 데를 보는 것처럼 아득해진 시선으로 중얼거리면서 기억을 더듬었다.

“변호사가 살뜰하게 챙겨주는 편이었죠. 국선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면회도 자주 오고, 사식이나 영치품도 잘 넣어주고. 심지어 재판 후에도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요? 같은 방을 썼던 수형자도요?”

강한의 질문에, 성진은 조금 망설이다가 자세한 얘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지온유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미결 수용자들과 함께 8인실을 썼습니다. 그때까지는 별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창문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형이 확정된 다음이었죠. 그때부터는 강력범들이 있는 6인실로 옮겼습니다. 창문 없는 방이었죠.”

“…….”

@@p22

강한은 지온유에게 폐소공포증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걸 진지하게 믿은 적은 없었다. 엄밀히 말하면 믿고 안 믿고를 따질 만큼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 징역 살기 싫어서 온갖 핑계를 대는 인간들을 수두룩하게 봤다. 검사에는 걸리지 않는 희귀병이 있다고 주장하는 놈부터, 바이러스 보균자라고 거짓말하던 놈, 자기가 없으면 고양이가 굶어 죽는다고 질질 짜던 놈까지.

지온유가 교도소에서 결국 자살했다는 비보를 들었을 때도, 자기 범행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버리려고 했다.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온유의 자살로부터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그 얘기를 듣게 된 것이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일단 복도가 잘 보이고, 노역이나 운동을 한다고 돌아다니기도 하니까요. 문제는 밤이었죠. 소등하기만 하면 애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문에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한번 그러기 시작하면 그 방은 물론이고 옆방 사람들까지 그날은 밤을 새우는 겁니다.”

성진은 악몽 같던 그날들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한 듯 진저리를 치면서 말을 이어갔다.

“검사님도 아시잖습니까. 5, 6년씩 형을 사는 강력범들, 심기가 뒤틀릴 대로 뒤틀려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돌아버려요. 밤마다 잠을 설치게 하는 어린놈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 하루가 멀다 하고 두들겨 패는 겁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만 골라서.”

“왜 말리지 않았습니까? 부이사관님이나, 아니면 다른 교도관이

@@p23

라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성진은 그렇게 말하면서 입고 있던 셔츠의 앞섶을 반사적으로 더듬거렸다. 담배를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이곳이 집 안이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성진은 담배 대신 냉수 한잔을 벌컥벌컥 들이켠 후 마침내 내뱉듯이 말했다.

“인과응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아무 죄 없는 어린애를 죽인 건 생각하면 할수록 혐오스러웠습니다. 그 범인이 아들놈 친구라는 건 더 끔찍했고요.”

바로 그 시점에 소원은 의자를 밀면서 일어났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아니, 들을 수가 없었다. 소원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강한은 부자의 갈등이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성진은 씁쓸한 어조로 말했다.

“때리는 기술이 귀신 같은 놈들이라 상처를 안 남긴다고 해도, 골병은 들 대로 들었겠죠. 지온유가 의무실에 세 번 넘게 실려 간 후, 결국 독방으로 옮기자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죠. 창문 없는 독방에 갇히자마자, 애가 벽에다가 머리를 찧어대면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사흘 후에 자살했습니다.”

강한은 잠시 숨을 멈췄다. 목덜미가 뭔가 아주 차가운 물질이 닿은 것처럼 한기가 들었다. 지온유의 비참한 죽음은 자신 때문일까. 의식은 곧바로 ‘아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징그러운 벌레가 살갗을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은 여전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연쇄 상해 사건의 범인은 온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강한을 비롯한 사법계 일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온유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 혹시 뭔가 기억나는 건 없으십니

@@p24

까?”

강한의 질문을 받은 성진은 거의 몇 분 가까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강한은 대화가 이것으로 끝난 줄 알고 주섬주섬 떠날 준비를 했다. 의자에 걸어두었던 겉옷을 챙기고,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휴대전화도 더듬어서 손에 쥐었을 때, 성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집에 갈 수 있다고 했잖아.”

“뭐라고요?”

“그런 말을 했어요. 발작을 일으킬 적에. ‘아니라고 하면 집에 갈 수 있다고 했잖아.’ 뭐 대충 그 비슷한 말을 계속하던 게 기억나요. 누구한테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강한은 성진의 말을 묵묵히 머릿속에 새겼다. 아직은 뜻을 알 수 없는 그 말이, 언젠가 수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오늘 해주신 이야기, 진술서 형태로 검찰청에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뭐든지요.”

성진은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강한을 부축해주려고 했지만, 강한은 손을 들어서 사양했다. 그리고 손목에 걸린 케인을 펴서 꼼꼼히 앞을 확인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 성진은 강한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현관까지 그를 따라 나왔다.

“검사님, 못나빠진 제 아들놈, 잘 부탁드립니다. 대단하신 분과 함께 있으면서, 저놈도 뭔가 좀 배우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말씀을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제가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무식한 녀석은 아니거든요. 한번 익힌 일은 곧

@@p25

잘 할 겁니다.”

성진의 담백한 말투에서는 아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애정과 은근한 믿음이 배어났다. 강한은 엷게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한 번 끄덕이고는 성진이 열어준 문 사이로 나왔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문간 옆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다. 강한은 이제 놀라지도 않았다. 성진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기에, 검사님 댁에는 어떻게 가실 거냐고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강한은 여전히 앞으로 몸을 향한 채 간결하게 물었다.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갈 거야?”

“상관하지 마세요.”

소원은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강한의 손 앞에 자신의 팔꿈치를 가져다댔다. 더 얘기하지말고 가자는 제스처였다. 강한은 소원의 팔꿈치를 잡으면서 넌지시 충고했다.

“아버지한테 잘해드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버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야.”

함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서, 강한은 소원이 입속에 사탕을 문 것처럼 ‘꼰대 같기는’ 하고 중얼거리는 걸 들은 것 같았다.

@@p26

@@{76

11월 2일 금요일 오전 8시 45분. 성암지방검찰청 앞 지하철역.

“거봐요, 형. 지하철 타는 것도 별거 아니죠? 내가 괜찮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소원은 강한의 팔짱을 낀 채로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말했다. 손으로 팔꿈치dlT를 잡고 가게 하는 보행법은 도떼기시장처럼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리 치이고 저리 밀리느라 옷매무새는 물론이고 머리카락까지 흐트러진 강한이 기막힌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별거 아니라고? 아까 그 아주머니가 내 엉덩이를 쥐었다가 놨다고, 분명히!”

“에이, 뭐 자기 가방이나 그런 걸로 착각했겠죠. 형 엉덩이에 뭐 만질 만한 게 있다고 굳이 주무르겠어요.”

둘은 시답잖은 말싸움을 하면서 승강장을 빠져나왔다. 오늘따라 장애인 전용 콜택시는 물론이고 일반 택시도 잡히지 않아서, 이대로

@@p27

있다간 정말 지각하겠다 싶어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탄 것이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땀 냄새와 입 냄새와 후덥지근한 열기에 시달린 강한은 아침부터 혼이 나갈 지경이었지만, 소원은 태연하기만 했다.

“앞으로는 매일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 어때요? 택시비 아낀 건 형이랑 나랑 반띵하고.”

“야, 그걸 왜 반띵을…….”

“어? 저기 세은 누나 같은데요?”

어처구니없어하는 강한의 말을, 소원은 그렇게 뚝 잘라먹어버렸다. 환승구 저편에서 걸어가고 있는 세은의 모습이 그를 설레게 했다. 손을 흔들며 세은의 이름을 부르려던 소원은, 그녀의 옆에서 불쑥 튀어나와 말을 거는 중년 여자를 보고 멈칫했다.

“은하? 어머, 너 은하 아니니? 나 민호 엄마야. 1703호에 살았던.”

중년 여자는 낯선 이름으로 세은을 부르면서 알은척하고 있었다. 세은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소원이 서 있는 곳에서도 훤히 보였다.

“안 그래도 어떻게 됐는지 걱정 많이 했는데. 작년 그 일 이후로…….”

“죄송해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세은은 아주머니의 말을 도중에 가로막으면서 차가운 투로 말했다. 그리고 총총걸음으로 아주머니를 지나쳐 순식간에 환승구를 벗어나버리고 말았다. 입을 헤 벌린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소원이 다소 익살스러운 투로 강한에게 말했다.

“세은 누가, 기분 나쁜 일 있나 봐요. 오늘은 잘못 건드리면 안되겠는데요?”

그러나 약 10분 후, 검사실에서 두 남자와 맞닥뜨린 세은은 언제

@@p28

나처럼 밝고 사근사근했다. 일과를 시작할 때 늘 그렇듯이, 부장검사실에서 우편물과 팩스를 챙겨와 하나하나 확인하던 그녀가 강한을 불렀다.

“검사님, 고유정 판사님한테서 팩스가 왔어요. 발급 일자가 10월 25일로 되어 있는 의사 소견서예요. 환자 이름이…… 지온유라고 되어 있네요.”

고유정 판사, 진단서, 그리고 지온유. 강한은 연달아 나온 세 단어에, 옆에 있던 소원이 동작을 멈추는 것을 기척만으로 알 수 있었다. 이제 소원도 강한이 펜션에서 받았던 전화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은 덤덤하게 말했다.

“그래요. 세은 씨가 좀 읽어줄래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소원에게 읽어달라고 하지 않은 것은 그의 감정에 대한 배려였다. 소원이 무거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세은이 낭랑한 목소리로 소견서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상기 환자는 지능 지수 65의 중도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하지만 타인의 유도와 암시에 넘어가기 쉬우며,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고 본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비좁고 어두운 곳에 갇히는 게 두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어 정신적 외상에서 기인한 폐소공포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은이 읽어주는 내용을 들으며 강한의 눈썹이 점점 위로 올라갔다. 고 판사가 왜 이 진단서의 존재를 숨겼을까. 강한은 고 판사의 남편이 올해 평화한국당에 입당해서 공천을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 두 가지 사이에 연관이 없다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

고 판사가 청탁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해도, 어쩌면 암묵적인 약속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닐까. 조 대표가 강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고 판사에게도 찾아가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진 않았을까.

고 판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겠지만, 그녀에게 솔직한 대답을 듣지 못하리라는 것을 강한은 알고 있었다. 그 또한 조 대표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털어놓을 마음은 없었으므르ㅗ.

‘하지만 난 조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증거를 누락시키진 않았어.’

강한은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석연치 않았다.

오후 2시 30분. 성암지방검찰청 증거보관실.

“장갑, 확실히 낀 거 맞지?”

“아, 꼈다니까요. 양손 다. 평생 속고만 사셨나, 진짜.”

소원은 비닐장갑 낀 손을 쥐었다 폈다 해서 일부러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검찰청에 매일 출근하면서도 증거보관실에 와보는 건 처음이었다. 강한도, 평소에는 올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은 외부인이나 다름없는 소원을 데리고 들어왔다. 증거보관함에서 1년 동안 잠자고 있던 지온유의 휴대전화 안에서 친모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다른 건 절대 건드리지 마. 휴대전화만 꺼내. 어떤 건지는 네가 알지?”

“알아요.”

@@p30

소원은 강한이 엄격하게 당부하는 말에 시큰둥하게 대답하면서 파란색 상자를 열었다. 강한이 왜 다른 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지는 알고 있었다. 1년 전 사건을 재수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뚜껑을 열자마자 소원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여자아이의 옷이었다. 투명한 비닐에 싸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가리 찢긴 분홍 원피스.

“왜 그래?”

소원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가라앉은 것을 알아차린 강한이 물었다. 소원은 장갑 낀 손으로 원피스 아래를 들추면서 살짝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피스 아래에도 온갖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하나같이 비닐에 싸여 있었지만, 그래도 형제를 알아볼 수 있었다. 소원은 그 당시 뉴스에서 들었던 물건들을 실제로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성인잡지, 과자 봉지, 음료수 캔. 족적을 떠놓은 석고보드도 있었다. 소원은 상자 구석에서 ‘지온유 휴대전화’라고 쓰여 있는 누런 종이봉투를 찾아냈다.

“여기 있네요.”

소원은 휴대전화가 당연히 켜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험 삼아 홈 버튼을 눌러보았다. 그러자 휴대전화에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켜졌다.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혼자 잠들어 있던 휴대전화. 그게 뭐라고, 소원은 괜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다.

“뭐부터 찾아볼까요?”

“전화번호부. 친엄마로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

“없을 텐데. 그런 거 있었으면 제가 옛날에 알았을걸요.”

@@p31

소원은 회의적으로 중얼거리면서 전화번호부 메뉴로 들어갔다. 저장된 번호는 고작 일곱 개에 불과했다. 위탁부모와 소원, 고등학교 3년을 다니는 동안의 담임교사 세 명,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러나 소원이 전화번호를 다 확인한 후에도 강한은 포기하지 않았다.

“통화 목록,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그리고 휴대전화 사진 갤러리까지 다 확인해봐.”

통화 목록은 무섭도록 썰렁했다. 문자메시지 내역도 마찬가지였다. 카카오톡에는 스팸을 제외하면 대화방이라고는 딱 두 개밖에 열려 있지 않았다.

하나는 소원과 주고받은 것. 별건 아니었다. 온유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편은 아니었으니까.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날리는 의미 없는 이모티콘과 오타 섞인 짤막한 말에, 소원은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했다.

나머지 하나는 위탁모와 주고받은 것. 온유의 위탁모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따금 주상복합으로 가사도우미 일을 나가곤 했다. 그럴 때마다 온유에게 동생들 데려와라, 설거지해놔라, 청소해놔라, 이것저것 명령하듯 지시한 내용이 남아 있었다.

“아들을 키우려고 한 건지 하인을 들인 건지…….”

소원은 혀를 쯧쯧 차면서 사진 갤러리로 넘어갔다. 사진 개수는 쓸데없이 많은데 중요해 보이는 건 별로 없었다. 온유에게 휴대전화로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소원이었다. 온유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사진이 찍힌다는 사실에 거의 열광하다시피 신기해면서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찍어댔지만, 초점이나 구도를 제대로 맞추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형도 예전에 이 사진들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보

@@p32

라고 하세요?”

“그땐 나도 직접 보진 않았어. 워낙 사진이 많고 엉망으로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라. 수사관한테 보고서 피해자와 연관 있어 보이는 것만 추리라고 했지. 별하 사진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

강한의 말대로, 갤러리에는 별하의 사진이 100장 가까이 있었다. 물론 별하가 렌즈를 보고 포즈를 취해준 그런 사진은 아니었고, 전부 옆에서 뒤에서 몰래 찍은 것들이었다. 그 사진이 다른 사람들 눈에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다. 소원에게도 좋아 보이지는 않았으니까. 갤러리의 사진들을 휙휙 넘기던 소원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우뚝 멎었다.

“형, 여기 좀 이상한 사진이 있어요.”

“이상한 사진? 뭔데?”

“책가방 메고 지나가는 별하를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 모퉁이에 희끄무레한 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사람 손가락같이.”

소원은 사진의 배경이 주상복합아파트 입구임을 알아보았다. 사진이 찍힌 날짜는 1년 전 8월 16일.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 끄트머리를 가로질러 희뿌옇게 번진 손가락이 찍혀 있었다. 강한은 그 얘길 듣고도 딱히 동요하지 않았다.

“그럼 손가락이겠지. 지온유가 사진 찍다가 잘못해서 찍힌 거 아냐?”

“아닐걸요. 휴대전화 렌즈는 위쪽에 달려 있고, 사진 찍을 때는 손이 휴대전화 아래를 잡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 손인 거 같아요. 꼭 저길 찍으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소원의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온유에게 자기 외에 다른 친구는 없었다는 믿음이 워낙 굳건해서,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이었다. 소원은 의사 소견서에 적혀

@@p33

있던, ‘타인의 유도와 암시에 넘어가기 쉽다’는 말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덧붙였다.

“형, 전부터 이상하게 여겼던 건데요. 온유는 별하 이전에는 어린 여자애한테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옆 학교 여고생들을 보고 예쁘다고 한 적은 많았어도.”

“그래서?”

“혹시 말이에요, 온유가 별하에게 관심을 갖도록 누가 유도했던 건 아닐까요?”

“그걸 어떻게 유도하는데?”

“그게…….”

소원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러게,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도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때, 증거보관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유미가 뛰어 들어왔다.

“오빠! 이것 좀 봐! 얼른!”

어찌나 마음이 급한지, 유미는 강한 앞에서 ‘이걸 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늘 새침하게 부르던 ‘선배님’이라는 호칭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였다. 강한은 소리가 난 방향으로 돌아앉으며 물었다.

“뭔데?”

“저번에 폐쇄한 ‘joy0331’ 계정 있잖아. 그것과 똑 같은 아이디로 새 계정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새 범행 예고까지 올라왔어. 그것도 어제 오후 4시에. 기자가 발견하고 제보 전화를 했더라고.”

강한은 자기도 모르게 제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범인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사실 강한은 여태껏 반신반의하는 상태였다. 경찰, 검사, 그리고 판결을 내린 판사

@@p34

까지 건드렸는데 이젠 더 복수할 대상도 없지 않은가 싶었다. 그런데 그 경고가 다시 한번 현실로 이루어지려 하고 있었다.

“이번엔 누구야?”

이전까지의 범행 예고는 모두 형식이 같았다. 타깃의 사진 위에 범행 방식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을 써놓는 형식이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고유정 판사를 찾기가 쉬웠다. 그러나 유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강한의 기대를 부수어놓았다.

“이번에는 사진이 없어. 검은 실루엣 이미지뿐이야. 마치 누군지 맞혀보라는 것처럼. 그냥 성경구절만 있어. 잠언 13장 15절. ‘배신자는 자멸의 길을 갈 뿐이다.’”

“사진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앞으로 한 시간 30분 안에 범행이 일어날 텐데!”

강한 대신 소원이 다급하게 외쳤다. 강한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고 판사 때보다도 시간이 훨씬 촉박했다. 사람 해치는 것을 무슨 다트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이 미친놈의 행동을 예측하고 달려가 막을 시간이.

@@p35

@@{77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해서 허둥지둥하지 않는 것이었다. 강한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해졌다.

“오늘이 11월 2일이지?”

“맞아. 선배 혹시 뭐 짐작 가는 거 있어?”

유미의 말에 강한은 머릿속으로 달력을 넘겨가면서 기억을 더듬었다.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울 테지만, 지온유 사건은 달랐다. 중요했던 날, 의미 있던 날은 어렴풋이나마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다.

“지온유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약 일주일 후, 내 기억이 맞는다면 1년 전 오늘 피고인 측의 항소포기서가 제출됐어.”

“나도 기억나. 우리 쪽에서는 피해자 유족의 강력한 청원을 받아들여서 항소를 포기했고, 그래서 그대로 1심 판결이 확정됐지? 징역 20년으로.”

유미가 강한의 말을 받았다. 항소포기 건에 대해서는 검찰청 내부에서도 팽팽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다. 강한이, 그리고 검찰이 줄기

@@p36

차게 원했던 형량은 당연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었다. 1심이 워낙 순조롭게 진행되었기에, 2심에 올라갔을 때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였다.

그럼에도 결국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름 아닌 김별하 부모의 간절한 부탁 때문이었다. 물론 그들도 재판 초기에는 사형 아닌 다른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하게 외쳤다. 그러나 언론과 대중의 도를 넘은 관심, 아니 스토킹에 가까운 괴롭힘과 끈질기게 파생되는 온갖 악성 루머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인내심마저 바닥나게 했다.

* 범인이 20년형을 선고받든, 사형을 선고받든, 어차피 별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잊힐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제발,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별하의 아버지가 애끓는 울음소리를 토해내면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을 보고, 강한도 고집을 꺾고 항소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피고인 측에서는 당연히 항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검찰보다 먼저 항소를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가 항소를 포기한 건 그렇다 쳐도, 국선변호인이 먼저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던 건, 지온유를 옹호하는 범인 입장에서는 배신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강한은 이번 번행 예고에 쓰인 성경 구절을 떠올리며 말했다. 잠언 13장 15절, ‘배신자는 자멸의 길을 갈 뿐이다.’ ‘배신자’는 알겠는데, ‘자멸의 길’이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이번에는 귀나 눈, 손 같은 구체적인 암시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강한의 말을 들은 소원이 붙잡고 있던 온유의 휴대전화를 상자 안에 도로 내팽개치면서 벌떡 일어났다.

“그 말은, 이번에는 윤지영 변호사님이 타깃이라는 거예요?”

소원이 알고 있는 온유의 변호사는 지영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법원과 검찰의 내부 사정이 많았다. 가만히 눈살을 찡그리는 강한 대신 유미가 설명했다.

“그건 확실하지 않아. 고유정 판사가 1심 변론 종결 직후에 국선 변호인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버렸거든.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건 새 변호사인데, 범인이 그것까지 알고 있을지는…….”

“당연히 알겠지. 이 사건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놈인데.”

강한이 유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덧붙였다.

“내가 기억하기로, 지온유의 새 국선변호인은 국선 전담이 아니라 사선 변호사였어. 김영철 변호사. 법원 근처에 사무실이 있는.”

“아, 선배 모르겠구나. 선배 입원하고 있는 동안, 김 변호사님 사무실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셨어. 은퇴하고,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가신다고.”

유미의 말에 강한은 조금 혼란스러운 낯빛이 되었다.

“미국이라고? 설마 범인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면 역시 윤 변호사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를 할 놈은 아닐텐데.”

담당 형사와 검사, 판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적인 일정까지 치밀하게 뒷조사한 범인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능한 실수라는 생각도 들었다. 국선변호인 교체 사실에 대해서는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가 어려웠다. 거기엔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정이 얽혀 있었기에,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들 조심했다. 교체된 국선이 한 일이라고는 한 장짜리 항소포기서를 달

@@p38

랑 제출한 것뿐이었다. 강한보다 더 마음이 급해진 소원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며 소리쳤다.

“잠깐만요, 제가 변호사님 전화번호를 알아요! 당장 전화 걸어볼게요!”

“스피커폰으로 해.”

소원은 강한의 지시대로 스피커폰 기능을 켰다. 신호음이 두 번 가고 나서 통화가 연결되었다. 지영의 조용한 목소리 대신, 수십 명이 동시에 시끄럽게 와글대는 소리가 휴대전화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변호사님, 저 소원이에요!”

소원은 냅다 고함을 쳤지만, 그 우렁찬 목소리조차 그 번잡한 소음을 뚫고 들어가진 못했다. 지영은 소원의 이름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듯했다.

* 여보세요? 나 지금 집회에 나와 있어서 통화하기 어려워요.

지영의 말도 뚝뚝 끊어졌다. 적어도 듣는 것에는 나머지 두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강한에게도 자음과 모음이 다 뭉개져서 들릴 정도였다. 소원은 의사소통하는 것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소리치기 시작했다.

“통화하기 어려워도 제 말 들으세요! 거긴 위험해요! 당장 나오세요! 변호사님, 들려요?”

* 나중에 다시 걸게요. 죄송해요. 아주 중요한 집회라서. 방해받으면 안 돼요.

소원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영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채 전화는 끊어져버리고 말았다. 소원이 얼른 다시 걸었지만, 휴대전화가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강한은 유미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물었다.

“오늘 어디서 무슨 집회가 있는데?  
“지난주에 평화한국당 조 대표가 김별하 법을 국회에 발의했잖아. 오늘 오후에 국회 앞에서 입법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들었어. 입법 찬성 집회도 함께 열릴 에정이라서, 무슨 돌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공안부에서 긴장하고 있던데.”

이거다. 강한은 직감이 왔다.

지영은 작년부터 ‘지온유는 진범이 아니다. 만일 지온유가 진범이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모든 지적장애인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입장은 살인범에 대한 옹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지영과의 사이에 냉정하게 선을 긋던 입법 반대 세력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지영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정도였다.

“가자. 국회 앞으로.”

강한은 소원을 이끌고 증거보관실을 나서면서, 제발 이번만은 늦지 않기를, 또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다.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장애인 차별 법안을 전면 폐기하라! 장애인은 강압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아이 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p40

지영은 녹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핏대를 올리고 있었지만, 유독 이상할 정도로 힘들어 보였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이마가 식은땀으로 흥건해진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였다. 그녀의 옆에 있던 중년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다.

“윤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몸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앉아서 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지영은 악문 잇새로 목소리를 쥐어짜내듯 말했다. 더 얘기해도 통하지 않을 걸 알았는지, 중년 남성은 무리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길 언저리에 설치된 천만을 가리키면서 상냥하게 말했다.

“그럼 저기 가서 음료수라도 드시고 하세요. 장애아동부모협회에서 협찬해준 거예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지영은 잠시 대열에서 빠져나와 천막 쪽으로 향했다. 천막 안에서도 녹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구석에는 플라스틱 병에 든 탄산음료가 박스째로 겹겹이 쌓여 있었다.

“이거 한 개만 가져갈게요.”

“네, 그러세요. 윤 변호사님.”

녹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 중 한 명에게 양해를 구한 지영은 그중 맨 위 박스에 든 음료수병을 하나 집었다. 그리고 천막 앞에 놓인 간이의자에 앉았다. 휴대전화를 켤까 하다가, 집회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또 배터리를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그만두었다. 어깨에 메고 있던 백팩을 의자 아래로 내려놓은 그녀가 그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고 있을 때였다.

@@p41

“이런 씨Ｘ, 분명히 우리 쪽으로 던진 게 맞다니까!”

지영의 시선이 향해 있는 반대편에서 크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에 질세라 받아치는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

“아니라니까요! 어쩌다 실수로 그렇게 된 거라고 몇 번을 말해요! 진짜 무슨 피해의식 있나.”

“뭐? 피해의식이 있는 쪽이 누군데? 거참 말 기분 나쁘게 하네.”

언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지만, 지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뻔했다. 그쪽에는 입법 찬성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허술한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지만 별생각 없이 던진 휴짓조각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였고, 이미 격앙된 사람들의 감정에 불이 붙기란 쉬웠을 것이다.

싸움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천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덕분에 지영은 천막 앞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다. 음료수, 백팩과 함께.

“자, 자. 진정하고, 좋은 말로 얘기합시다. 다들 자식 걱정하는 부모 입장인 건 똑같지 않습니까?”

몇 분이 지나고, 누군가가 중재하고 나서는 듯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다. 가까스로 진화되는 것 같은 분위기에 지영은 한결 안도했다. 그녀는 평화주의자였다.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열린 이 집회로 인해 또 다른 대립이 조장되는 건 원치 않았다.

“서로 의견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지영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탄산음료를 쥔 손을 들어 올렸다. 녹색의 불투명한 음료수병 속에서 기포가 부글거리며 올라오는 게 언뜻 비쳤다. 그대로 입가에 가져다대려는 순간이었다.

@@p42

“변호사님! 그 음료수 드시면 안돼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면서 시위 현장에 울려 퍼졌다. 지영은 깜짝 놀라면서 음료수를 마시려던 손을 멈췄다. 그러자마자 큰길 저편에서 강한과 소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소원이?”

지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소원의 이름을 불렀다. 소원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이쪽으로 뛰어오더니, 그녀의 손에서 음료수병을 확 빼앗아 들었다.

“위험해요.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뭐? 이게 무슨…….”

소원은 음료수병을 거꾸로 들어서 잔디밭 위에 주르륵 쏟았다. 그러자 코를 쏘는 지독한 신 냄새가 나면서, 치이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강한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오감으로 기억해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소리를, 그 냄새를, 그 느낌을.

“고농도 염산이군요. 그대로 드셨다면 틀림없이 큰일이 났을 겁니다.”

“염산이라고요?”

강한의 말에 지영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의자 옆에 놓아두었던 백팩을 끌어안았다. 소원은 반사적으로 나온 것 같은 그 동작을 보면서, 아무리 경험 많은 변호사라 해도 역시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겁에 질리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음료수라고 했죠? 어떤 종류입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준 거죠?”

강한은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향해 날카롭게 질문했다. 사실 이번 범행이 음독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짐

@@p43

작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예전 범행들과 달리 어떤 물리적 타격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함정 같은 장치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다. ‘배신자는 자멸의 길을 간다’는 구절이 있었으니까.

“그냥 평범한 탄산음료예요. 장애아동부모협회에서 협찬받아서 저기 천막에서 나눠주는 걸 받아왔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천막에 쌓여 있는 박스에서 내가 집어왔어요.”

“박스에서 집어오셨다고요? 변호사님이 직접?”

지영의 대답에 강한은 혼란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여러 개 중에서 무작위로 집어온 것이라면, 누구도 지영이 그 음료수를 마실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염산을 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변호사님, 혹시…….”

강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는 찰나였다. 큰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들었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누군가 다급하고 절박한 어조로 외쳤다.

“어이쿠!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준 음료수병들도 당장 회수해야겠습니다. 다들 뭐 해! 어서 돌아다니면서 찾지 않고!”

“그러게요. 정말 큰일이네요!”

사람들은 흩어져서 찾자느니, 전체 방송을 하자느니,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자느니 하면서 제각각 대응책을 외치고 있었다. 정신없이 웅성대는 소리가 강한의 청각을 덮어버렸다. 남아 있는 거라곤, 코의 점막을 헐게 할 것처럼 강렬한 염산 냄새뿐이었다.

@@p44

@@{78

11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성암지방검찰청 검사장실.

* 최근 성암시를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은 연쇄 상해 사건의 네 번째 피해자로 지목된 윤지영 변호사가 30분 전 성암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강한은 검사장실 소파에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앉아 TV에서 흘러 나오는 앵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상석에는 당연히 검사장이 앉아 있었고, 검사장실 안에 그들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검사장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기자회견 영상이 나오는지 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 저는 지난 금요일 오후 4시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시위 현장에서 음독 테러를 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마시려던 음료수 병에 이상한 물질이 섞여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45퍼센트 고농도의 염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한은 지영의 떨리는 목소리에 숨겨진 다양한 감정들을 읽어냈다. 염산을 마시지 않고 지나갔다는 안도감, 아직 가시지 않은 충격,

@@p45

한번 실패한 범행은 다시 시도해 어떻게든 성공시키고야 마는 범인에 대한 공포, 그리고 분노, 그 대상은 누구일까. 범인? 아니, 뜻밖에도 범인이 아니었다.

* 다들 알고 게신 것처럼, 일주일 전 연쇄 상해 사건의 범인은 국내 언론에 공개 서신을 보내 성암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재수사해서 진범을 찾아내지 않으면 도 다른 희생자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암지방검찰청은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그 걱정에 급급한 나머지 사건을 재수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시작했던 지영의 말투는 점점 비판하는 조로 변해갔다. 그녀는 숨을 고르려는 것처럼 잠시 말을 멈추었고, 다음 순간 강한은 TV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다. 달칵. 그걸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사용하는 녹음기에서 나는 소리와 똑같았기 때문니다. 강한은 지영이 녹음한 음성을 들려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혹시 범인에 대한 단서가 있는 걸까?’

강한은 잠시나마 기대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스피커에서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소원의 목소리가 그의 기대를 산산이 부수었다.

* 1년 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아요. 다들 그 당시 잘못한게 없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예요. 저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높으신 검사님들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어쩌겠어요.

강한은 숨을 멈춘 채 잠시 굳어져버렸다. 냉철함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이토록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 이게 소원의 목소리라는 건 너무도 확실한데, 도대체 어쩌다 이

@@p46

런 얘기가 지영의 녹음기에 포착되고 말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지영은 다시 한번 달칵 소리를 내면서 녹음기를 끄더니 말을 이었다.

* 이건 제가 성암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한 것입니다. 방금 들으셨다시피,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수사팀 검사들은 과거 수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오만할 수가 있을까요?

지영은 위풍당당하게 검찰을, 그리고 강한을 질타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그만두고 한때 폐인 같은 모습으로 동네 뒷골목을 돌아다니던 사람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 저는 지온유의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사람인데도 타깃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범인이 왜 저를 노렸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변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거나,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범인에게만 통하는 다른 논리가 있었겠죠.

그 부분은 강한에게도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범인은 정말 항소심이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영을 죽이려고 한 것일까. 그녀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으로 기자회견의 대미를 장식했다.

*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성암시에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연관된 일을 하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1년 전 사건에 엮여서 범인의 다음 희생자로 지목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저는 성암지방검찰청에, 불특정 다수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이 자존심 싸움을 당장 중단하고 재수사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영상이 끝나고 날씨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강한은 검사장이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p47

“강 검사, 총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셨네. 더는 불필요한 희생자가 나오는 걸 볼 수 없으니, 현재 사건 수사와 과거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나도 이 시점에선 그게 옳다고 생각하네.”

“…….”

“자네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염산 테러범을 잡는 데만 집중하면 돼. 지온유 사건 재수사는 부수석과 정유미 검사에게 맡기겠네. 자네가 말했던 것처럼 수사 과정에 아무것도 부실한 점이 없었다면, 재수사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걸세.”

사실 검사장은 강한을 질책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 대신 온건하게 설득하는 쪽을 택했다. 한 검사의 인생에 한 획을 그을 만큼, 아니 어떻게 보면 검사 인생을 새롭게 쓰게 만든 중대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검사장은 윗사람이기 전에 같은 검사로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한은 겨우 그렇게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앉아 있던 소파에서 검사장실 입구까지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그냥 비어있었다. 일직선으로 쭉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저도 모르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빠지던 강한은 급기야 케인을 엉뚱한 곳에 짚으면서 검사장실 책상에 정강이를 부딪히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검사장이 놀라서 다가오려고 했다.

“강 검사, 괜찮나? 부축해줄까?”

“괜찮습니다.”

강한은 단호하게 손을 내젓고, 다시 케인으로 앞을 더듬더듬 짚으면서 검사장실을 나왔다. 문 앞에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소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소원이 강한의 손 앞에 제 팔꿈치를 가져다대는데,

@@p48

강한은 그걸 차갑게 뿌리치면서 말했다.

“너, 나 좀 보자.”

“홍세은 수사관, 잠깐 나가 있어요. 이 녀석하고 둘이서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케인을 짚으며 성큼성큼 들어온 강한은 다짜고짜 세은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의 뒤에는 소원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들어오고 있었다.

“네? 검사님, 하지만…….”

수사관이 검사실을 비우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려던 세은은 강한의 정색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아주 심각한 것만은 확실했다. 그녀가 나가고 문이 닫힌 후, 강한은 뒤돌아서면서 싸늘한 어조로 말했다.

“입을 놀려야 할 때와 다물어야 할 때를 아직도 구분 못하지. 네 생각 없는 말 때문에 우리 검찰청이, 아니 검찰 전체가 어떤 망신을 당하게 됐는지 알기나 해?”

기자회견 영상을 보지 못한 소원은 정확히 자기가 했던 어떤 말이 뉴스에 나온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저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에 강한에게, ‘네가 윤지영 변호사에게 떠들어댄 내용이 뉴스에 나왔다’고 들었을 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기가 확 꺾일 줄 알았는데, 소원은 의외로 당당한 태도였다.

“솔직히 제가 없는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뭐?”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이라고요.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

@@p49

었는데 최대한 좋게 말했다고요. 심지어 욕도 한마디 안 했잖아요. 윤 변호사님이 녹음하고 계신 건 몰랐지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없는 얘길 꾸며내진 않았을 거예요.”

“…….”

소원은 차라리 이렇게 되어서 잘됐다고 생각했다. 그가 보기에 강한은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었다. 검찰의 긍지고 검사의 자존심이 뭐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까 애초에 그놈의 고집을 꺾고 재수사했으면 이런 사달이 안 나잖아요. 형, 사람 하나 죽일 뻔한 거 알고는 있어요?”

이상했다.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소원은 말하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격양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면서 강한을 향해 윽박지르듯 소리쳤다.

“형도 살인자가 될 뻔한 거라고요. 아니, 이미 살인자나 다름없죠. 온유는 형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건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소원도 알고 있었다. 말하고 나서야 아차 싶었지만 거둬들일 뜻은 없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갈 데까지 가보자 싶었다. 소원이 말을 끝맺는 동시에 강한의 오른손이 허공으로 올라갔다. 마치 소원의 뺨을 때리려는 것처럼, 소원은 겁먹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오히려 강한의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면서 제 얼굴을 들이밀었다.

“때려봐요. 지금 이 각도에서 그대로 내리치면 정통으로 맞을 거예요.”

“…….”

“뭐 해요, 때려보라니까요? 왕년에 한주먹하셨다면서요. 좀 보여 줘봐요.”

@@p50

소원이 깐죽거릴수록 확 패주고 싶은 강한의 마음도 강해졌지만, 이상하게도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물론 링 위에서긴 했지만 여태까지 사람 때리는 걸 주저해본 적이 없었는데. 강한은 텅 빈 동공으로 소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노려볼 뿐, 손을 내리치지는 못했다.

“왜요? 못 때리겠어요?”

두 남자 사이에 끊어질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데, 강한의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하면서 그 긴장감을 잠시나마 깨뜨렸다. 강한은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꺼내면서 소원을 향해 위협적으로 말했다.

“너 지금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어.”

“네, 네.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봤자 소원에게는 별 위협이 되지 못했다. 강한은 약이 올라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면서 휴대전화 화면을 더듬어 통화 연결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 강한 검사님 되시죠? 여기 요양병원인데요. 최대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상태가 나빠졌어요. 상황이 심각해요.

“지금 가겠습니다.”

강한은 망설임 없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휴대전화에서 새어 나오는 목소리를 엿듣고 있던 소원도 덩달아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느새 잊어버렸다.

“형,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어느 병원이에요?”

“택시 불러.”

강한은 짤막하게 손을 더듬어 의자를 찾고, 의자에 걸쳐

@@p51

두었던 겉옷을 집어 들었다.

“여보세요? 콜이죠? 여기 성암지방검찰청인데요…….”

소원이 콜택시 회사에 다급하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택시가 도착하는 데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소원은 강한을 향해 팔꿈치를 내밀었고, 강한도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았다. 로비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대기하던 택시에 올라탄 강한은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했다.

“성암요양병원이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학병원과 달리, 변두리에 있는 요양병원까지는 택시로도 30분이 넘게 걸렸다. 그 동안 강한은 창 밖을 내다보면서, 아니 창 밖을 보는 것처럼 턱을 괴고 자세를 취한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소원도 그런 강한에게 말을 걸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다 왔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 달리던 택시가 마침내 커다란 적색 벽돌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강한은 어머니가 전원해온 이 병원에 와보는 게 처음이었다. 병원 측에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비용만 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도 보지 못하는 보호자가 와봤자 짐만 될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강한은 막상 병원에 도착하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형, 집중치료실로 가면 되죠? 이쪽이에요!”

택시에서 계산을 마치고 내린 소원이 눈치 빠르게 강한의 팔을 잡아 끌었다. 시각장애인 보행 안내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는 게 원칙이라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집중치료실은 3층에 있었다. 강한을 질질 끌고 오다시피 한 소원이 자동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스테이션에 서 있던 간호사

@@p52

가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한영애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소원은 가만히 있고 강한이 대답했다. 간호사는 선글라스를 끼고 케인을 손목에 끼운 강한을 조금 놀란 표정으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기면 안 돼요. 지금 CPR(심폐소생술) 중이에요.”

“CPR이요?”

강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모친에게는 부정맥 증상이 있었고, 이전에도 심정지가 두 번 온 적이 있었다.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 있어야만 하는 건 그래서였다. 그때, 집중치료실 저편에서 절박하게 외치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150줄 차지, 물러서! 하나, 둘, 셋, 샷!”

“200줄 차지, 하나, 둘, 셋, 샷!”

강한은 그쪽을 향해 우두커니 선 채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등에서 푸르스름한 굵은 핏줄이 튀어나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귓바퀴를 덮었다.

@@p53

@@{79

다행히 강한의 어머니는 죽지 않았다. 강한은 집중치료실에 있는 어머니의 침대 앞에 앉아서, 그녀의 목소리나 숨소리 대신 기계가 삑삑거리는 전자음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소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저, 보호자분도 몸이 편치 않으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강한에게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훅 끼쳐오는 소독약 냄새와 그 끝에 묻어나는 스킨 냄새. 정중하면서도 권위가 있는 목소리. 의사였다.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원무과에서 들으니 입원할 때부터 안내를 받으셨다고요. 우리 요양병원은 어머님 같은 특수한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언제 또 위급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대학병원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온 거 아닙

@@p54

니까.”

강한은 무뚝뚝하게 받아쳤다. 솔직히 말하면 그도 지칠 대로 지쳤다. 어느 병원에서도 돈은 안 되고 손만 많이 가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의사는 강한의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차분하고 온화한 어조로 달래듯 말했다.

“원래 성암대학병원에 계셨죠? 그쪽에 어떻게든 얘기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곳에 계시는 한, 어머님은 하루하루가 위험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의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사라졌다. 강한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것 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잠시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옆에 앉아 있는 소원에게 말했다.

“잠깐 나 좀 혼자 있게 해줄래? 아니,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있게 해줘.”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소원은 그답지 않게 고분고분하게 대답하고는 집중치료실 밖으로 나갔다. 소원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잠자코 듣고 있던 강한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연락처를 일일이 넘기면서 확인할 기운도 없어서, 그냥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기로 했다.

“조민국 대표에게 전화 걸어.”

* 조, 민, 국, 대, 표, 님에게 전화를 겁니다.

다행히 음성인식 기능은 강한의 목소리를 한번에 알아들었다. 신호음이 몇 번 지나간 후, 스피커폰에서 조 대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 오, 강 검사. 그 동안 잘 지냈나? 안그래도 한번 연락하려고 했네.

@@p55

이게 조민국이라는 사람의 대단하고 또 무서운 점이었다. 강한이 여진과의 약혼을 깨뜨린 후, 조 대표는 연락을 싹 끊고 강한을 죽은 사람 취급했다. 그런데 지금 조 대표의 유쾌한 말투를 들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았다.

“바쁘실 테니 단도직입적으로 용건만 얘기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무슨 일인가?

“대표님께서 VIP병동에 입원시켜주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요양병원으로 전원 오신 상태인데, 여기에선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 성암지검에서 지온유 사건을 재수사할 거라고 들었네.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어. 한 나라의 사법기관이 테러범의 위협에 굴복해서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 말일세.

조 대표는 강한의 부탁에 가타부타 뭐라고 대답하는 대신 뜬금없이 재수사 얘기를 꺼냈다.

* 내 보좌관은 하던 일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네. 아내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 시도까지 했다고 하더군.그런데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일깨워주려고 하는 건가?

“대표님, 그건…….”

* 어차피 범인이 뒤바뀌진 않을 것 아닌가. 그럴 리가 없지. 지온유가 감옥에서 자살까지 했는데. 그랬다가는 검사인 자네가 엉뚱한 사람을, 그것도 어른 소년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인정하는 게 될 테니. 대한민국 사법계에 다시 없었던 치명적인 과오로 남을걸세.

조 대표는 묵직한 말로 강한의 뼈를 때렸다. 강한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데, 조 대표가 선심 쓴다는 듯한 투로 덧붙였다.

@@p56

* 재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용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겠네. 사건 기록을 한번 재검토하고, 당시 가장 강력한 증거였던 DNA 증거를 확인해보는 정도면 충분하겠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다시 들쑤시는 일은 절대 없게 해주게.

“…….”

* 어머님은 내일 오전에 곧바로 대학병원 VIP병동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조치하겠네.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한때 가족이었던 사이에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겠나.

조 대표는 그렇게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뚜, 뚜, 뚜. 소리가 울리는 동안 강한은 휴대전화를 쥔 채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조 대표에게 부탁하는 처지가 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다.

‘아픈 어머니를 볼모로 잡힌 것 같군. 아니, 같은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건가……’

강한의 입가에 소태처럼 쓴웃음이 번지고 있을 때, 등 뒤에서 갑자기 소원의 목소리가 났다.

“이제 알겠네요. 1년 전에도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강한은 흠칫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평소 같았다면 자신이 있는 공간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을 곧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조 대표와 통화하느라 소원이 들어와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조 대표? 조민국? 그 사람이 뭔데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대한민국 검사가 쩔쩔매면서 한마디도 못해요?”

“병원에서 큰소리 내지 마. 차라리 나가서 애기하자.”

“뭐 어때요? 어차피 형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 듣잖아요. 아무것

@@p57

도 모르잖아요.”

가시처럼 아프게 찌르는 말에, 강한은 그만 어깨를 움찔했다. 소원은 그런 강한을 보면서 비웃듯이 물었다.

“왜요? 내 말이 너무 잔인해요? 형이 당하는 입장이 되니까 좀 느껴져요?”

“밖으로 나와.”

강한은 케인을 짚고 집중치료실을 나가면서 소원에게 명령했다. 더는 소원에게 자신의 명령이 먹히지 않으리라는 직감이 들었지만. 옆얼굴이 묘하게 따끔거리는 느낌에, 소원이 자신을 지그시 노려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소원은 강한을 따라 나갔다. 그들 사이에는 꼭 해야 하는 얘기가 있었다. 더는 미룰 수 없었다.

강한과 소원은 병원 앞길까지 나왔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 구분이 따로 없었다. 강한은 더 한적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소원이 거기까지 조용히 나와준 것도 많이 참은 거였다. 그는 병원 현관문을 벗어나자마자 강한의 옷소매를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듯 놓아버리면서 말했다.

“형. 아니, 강한 검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1년 전, 온유의 사건을 정말 아무 편견 없이 공정하게 수사한 게 맞아요?”

“난 모든 증거를 검토해보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야.”

“그건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p58

“…….”

“밖에 나갔다가, 간호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검사님 어머님은 원래 대학병원 VIP병동에 있으셨다고요. 거기 입원비가 하루에 80만 원이라고요. 근데도 자리가 없어서 아무나 못 들어간다면서요? 검사님, 솔직히 그렇게까지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검사님 어머님은 그런 곳에 1년 가까이 입원하셨던 거예요?”

소원은 주먹을 불끈 쥐며 따지듯 물었다.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한 말은 그칠 줄 몰랐다.

“조 대표가 검사님 뒤를 봐준 거죠. 그래서 어머님도 연줄로 입원시키고, 조 대표 딸하고 약혼도 하고, 좋은 집, 좋은 차도 사고. 나한테는 검찰 내부 사정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조 대표랑은 줄줄이 다 얘기하잖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마.”

강한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면서 경고하듯 말했지만, 소원은 멈출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내가 뭘 함부로 말했는데요? 그냥 사실 그대로 말했을 뿐이잖아요. 왜요? 팩트로 처맞으니까 아파요? 더 해줘요? 검사님도 결국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검사들이랑 똑같아요. 권력에 빌붙는 개라고요!”

그 순간, 더는 참지 못한 강한이 소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소원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어서, 정확한 뱡향과 각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웠다. 허공을 가로지른 강한의 주먹은 소원의 어깨 위쪽을 스쳐 지나갔다. 아프지도 않을 정도였다.

“이건 분명 그쪽이 먼저 친 거예요. 선빵 날린 거라고요.”

소원은 가소롭다는 듯 어깨를 툭툭 털어내면서 강한을 향해 그렇

@@p59

게 못 박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주먹을 날렸다.

퍽-!

얼굴에 주먹이 정통으로 맞아들어가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강한의 몸이 홱 뒤로 넘어갔다. 만일 이곳이 링이고 강한이 앞을 볼 수 있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소원은 휘청대는 강한을 향해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말했다.

“지온유가 범인이든 아니든,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검사님이 돈과 권력의 유혹에 졌다는 거, 그래서 더 파볼 수 있는 사건을 파보지 않았다는 거. 그게 잘못인 거라고요. 절대 용서받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

“이번 일은 어떻게 보면 검사님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그걸 똑바로 볼 수 없다면, 마음의 눈까지 멀어버린 거라면, 나도 더는 당시 같은 인간을 돕고 싶지 않아.”

“류소원…….”

강한은 들릴락 말락 작게 소원의 이름을 불렀다. 이상했다. 소원은 분명 강한을 원망하고 있는데, 비난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는 꼭 금방이라도 울음이 묻어날 것만 같았다. 꼭 맞은 사람보다 때린 사람이 더 아픈 것처럼.

“우린 여기서 끝이에요. 남은 봉사활동 시간은 제가 어떻게든 채워볼게요. 이 꼴을 보고 사느니 차라리 화장실 청소, 도로 청소나 하면서 노예처럼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뭐, 그냥 나도 감방에 처넣으시든가. 어차피 그게 당신들 주특기잖아요?”

소원은 신랄한 빈정거림만을 남기고서, 강한을 길 한복판에 두

@@p60

고 등을 돌렸다. 급속히 작아지는 발걸음 소리가, 그가 얼마나 빠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알려주었다. 강한은 소원을 붙잡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만 들 뿐이었다. 자석의 S극과 S극을 억지로 붙여놓아봤자 언젠가는 더 거센 반동으로 튕겨나갈 뿐이라고.

‘택시를 불러서 집에 가야겠군.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자.’

강한은 소원 없이도 집에까지 가는 건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기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누군가 병원으로 급하게 뛰어 들어가면서 강한의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에 강한의 손가락 사이에 있던 휴대전화가 허공으로 휙 날아가고 말았다.

“아, 죄송합니다!”

“이봐요, 휴대전화 주워주고 가야죠!”

강한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그 사람은 이미 병원 안으로 들어가버린 후였다. 강한은 조심스럽게 쪼그려 앉아서 발 주변을 더듬거렸지만 휴대전화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멀리 날아가버린 것 같았다.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다. 언제 어디서 차가 달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저기, 아무도 안 계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강한은 인기척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지만, 역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강한의 오른편에서 부우우웅 소리를 내면서 차 한 대가 거칠게 달려왔다. 강한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다. 다급하게 케인을 펴서 바닥을 짚으려다가, 케인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바람에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p61

“읏!”

강한은 길 언저리의 진흙탕에 무릎을 처박으면서 넘어졌다. 자동차는 그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얼굴에 튄 진흙을 손등으로 닦아내면서, 강한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난 정말 돈과 권력의 유혹에 넘어갔던 걸까? 편견과 예단에 가득 찬 눈으로 사건을 보고 있었던 걸까?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 대표의 구미에 맞는 수사 결과를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라면…….’

어떻게든 몸을 일으키려고 바닥을 더듬거리던 강한의 손끝에, 익숙한 촉감이 와닿았다. 그의 휴대전화였다. 어디로 날아갔나 했더니 진흙탕에 처박혔던 것이다. 강한은 다급히 휴대전화를 건져냈다. 혹시 고장 난 게 아닌가 싶어서 조마조마한 찰나, 기적처럼 휴대전화가 울렸다. 강한은 누군지 확인해볼 틈도 없이 통화 버튼을 찾아서 눌렀다.

* 검사님, 저 한정남 경감입니다.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사실 1년 전 사건에서, 제가 사건 기록에 남기지 않았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  
- 검사님, 듣고 계십니까? 검사님?

온통 갈색 물이 튄 얼굴로 길바닥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는 강한의 귓가에, 한 경감의 목소리가 헛된 메아리를 남기여 울려 퍼지고 있었다.

@@p62

@@{80

1년 전 10월 10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성암지방법원 형사 제2합의부 법정.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류, 소, 원.”

소원은 이름 석 자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손을 내렸다. 증인석에서 보았을 때 법대 우측, 변호인석이라고 쓰인 자리에 앉아 있는 지영이 우선 신문을 시작했다.

“먼저 증인이 누구인지,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주세요.”

“이름은 류소원이고요. 성암고등학교 3학년 7반이고요. 저기 앉아 있는 온유…… 그러니까 피고인하고 친구 사이예요.”

소원은 지영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온유를 힐끔거리며 말했다. 온유는 소원과 똑 같은 하늘색 옷을 입고 있었다. 다른 게 있다면, 소원의 옷은 교복이고 온유의 옷은 수의라는 점뿐이었다. 온유는 소원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여기가 어딘지 분위기 파악도 못한 듯 입꼬리를 끌어올리면서 히죽 웃어 보였다. 물론 소원은 웃기는커녕

@@p63

눈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피고인과 친구 사이라고요? 많이 친한 사이인가요?”

“가장 친해요. 중학교 입학할 때쯤 온유네가, 그러니까 온유랑 온유 위탁부모님이 저희 아파트 옆집에서 이사 와서 그때부터 쭉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면 평소 자주 만나기도 했겠네요?”

“네, 등하교는 웬만하면 같이하는 같이하는 편이었어요. 온유가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고요. 사실, 그 사건이 있었던 날에도 왔었어요.”

소원의 말은 법정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법대에는 세 명의 판사가 앉아 있었는데, 진행을 주도하는 건 그 중 가운데 앉아 있는 여자 판사, 고유정이었다. 그녀는 소원의 말을 듣자마자 모을 길게 빼면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반면, 붉은 깃이 달린 검은색 법복을 입고 검사석에 앉아 있는 남자는 눈썹 한 올 꿈틀하지 않았다. 강한 검사였다. 지영은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했다.

“방금 증인이 말한 ‘그 사건’은 김별하 양이 살해당한 사건이고,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이란 9월 1일 금요일을 말하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날 수업이 3시 50분에 끝났는데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다가 폐공장 앞길에서 온유를 만났어요. 자전거를 태워달라고 하도 졸라서 태웠다가 같이 넘어졌는데, 옷을 다 버려서 그대로 집에 데려왔어요. 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고, 6시 무렵까지 같이 있었던 거 같아요.”

“6시까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나요?”

“그냥, 얘기했어요. 온유가 별이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애냐고 제가 놀렸어요. 생일인데 선물도 준비 안 했다고 하기에

@@p64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별이가 누군지 알아야 제가 그려주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그랬더니 온유가 어떤 여자애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줬어요.”

소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영은 실물화상기에 컬러 출력한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다. 소원이 휴대전화에 저장해놓았던 별하의 사진이었다.

“이 사진을 말하는 건가요? 오후 5시 45분에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증인 휴대전화로 전송된?”

“맞아요.”

“그러면 5시 45분까지 피고인과 증인이 함께 있었던 건 확실한 거네요?”

“네.”

소원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동시에, 여태껏 무심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던 강한이 마이크에 대고 입을 열었다.

“이의 있습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뭡니까?”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두려는 겁니다. 검찰 측 증거 제 32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보고서를 봐주십시오.”

지영은 보고서 복사본을 실물 화상기에 올려놓고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피해자의 사망추정 시각이 오후 5시 10분에서 30분 사이. 오차범위는 20분 내라고 되어 있죠. 피해자는 사건 당일 5시까지 발레학원에 있었고, 발레학원에서 받았던 간식이 부검 당시 위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보다 큰 오차는 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류소원 증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에게는 알리

@@p65

바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지영의 말에 판사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반면 강한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은 듯, 법복 옷깃을 가볍게 잡아당겨 펴면서 여유만만한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변호사님 주 신문 끝나셨으면, 검찰 측 반대신문 시작하겠습니다.”

강한은 검사석을 벗어나 소원이 서 있는 증인석까지 성큼성큼 걸어왔다. 신문 사항을 적은 종이도, 마이크 같은 것도 필요 없었다. 그저 두뇌와 목소리면 충분했다.

“증인, 피고인과 친구 사이라고요?”

“네.”

“친구가 맞습니까? 경찰과 검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암고등학교 학생들을 탐문했을 때,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하나도 없던데요.”

“그건…….”

소원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온유를 보고 그만 입을 다물어버렸다. 온유가 보는 앞에서, ‘장애인과 친구라는 사실이 창피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다. 강한은 말끝을 흐리는 소원을 보며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피고인의 담임선생님 진술에서도, 생활기록부에 첨부된 교우관계 조사서에도 증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둘이 거의 매일 같이 등하교했다면서, 정작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하나도 없군요. 그 학교에는, 증인과 피고인만 따로 다니는 특별한 지하통로라도 있었던 겁니까?”

강한의 신랄할 빈정거림에, 법대 오른쪽에 앉아 있던 젊은 배석판사가 저도 모르게 픽 웃는 소리가 났다. 소원은 어떻게든 변명해

@@p66

보려고 했다.

“학교까지 같이 가진 않았어요. 등교할 땐 아파트에서 폐공장 건물까지 같이 간 다음에 헤어지고, 하교할 땐 반대로 건물 앞에서 만났어요. 저한테도 저기, 다른 친구들이 있으니까…….”

소원은 자기 말이 궁색하게 들린다는 걸 알았다. 아마 강한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피고인의 집단상담 기록을 보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던 내용이 나와 있더군요. 그 당시 증인도 피고인과 같은 반이었죠?”

강한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투로 말했다. 류소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증인신청서가 제출된 직후, 철저한 사전조사를 마쳤다. 이런 애송이 하나 박살 내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다.

“같은 반이긴 했는데요…….”

“수학여행을 가는 버스에서 누구도 피고인의 옆에 앉고 싶어하지 않아서 피고인은 결국 혼자 앉아서 갔다고요. 수학여행 장소인 유스호스텔에서도 다들 피고인과 같은 방 쓰는 걸 싫어해서 독방을 쓰게 됐고요. 증인이 피고인의 친구라면, 그런 상황에서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

“둘이 이웃집에 살면서 알고 지낸 건 맞지만 친구라고 표현할 만한 사이는 아니었죠? 사건 당일에도 함께 있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강한은 다 꿰뚫고 보고 있다는 듯한 투로 말했다. 소원은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라 허둥거리다가, 휴대전화에 있던 사진을 떠올리고는 절박하게 외쳤다.

“그 사진, 사진 받은 거 있잖아요!”

@@p67

“그건 다른 어디에서 보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메신저 전송 내역만으로는 정확한 위치가 나오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건 몰라요. 그날 온유랑 같이 라면을 먹었다고요, 분명히.”

“맞아요, 우리 라면 먹었어요.”

점점 문답의 간격이 짧아지는 신문에 갑자기 끼어든 사람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온유였다. 강한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그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지영이 부드럽게 손을 뻗어 온유더러 가만히 있으라는 시늉을 했다. 강한은 차갑게 코웃음 치며 말했다.

“같이 앉을 수는 없어도 같이 라면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다고 칩시다. 검찰청에서 증인의 아버지인 류성진 교도관에게 전화해 확인해본 결과, 류 교도관이 그날 5시 30분에 퇴근했고 퇴근해보니 증인 혼자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강한은 빠른 속도로 말하면서 실물화상기에 ‘수사보고서’라고 쓰인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다. 거기에는 강한이 방금 말한 내용이 타이핑되어 있었다. 그걸 본 소원은 잠시 당황하다가 어물어물 대답했다.

“그건 아부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고 엮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오늘 증인 나오는 것도 반대했고.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나가야 한다고, 재판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기자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고…….”

“증인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아버지는 3년 연속 모범 교도관으로 표창받을 만큼 성실하고 정직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던데요. 반면 증인은 어떻습니까? 올해 3월,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p68

저질러서 징계받은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강한은 사전에 입수한 성암고등학교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일부를 실물화상기에 올려놓았다. ‘3학년 류소원’ ‘커닝’ ‘0점 처리’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에 줄을 쳐놓은 게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소원의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붉어졌다.

“그건 초치기라고 애들이 다 하는 건데, 재수 없게 혼자만 걸려서……. 진짜 시험도 아니었고 그냥 모의고사였어요. 그것도 제2외국어…….”

“모의고사면 부정행위를 해도 된다는 겁니까? 모의고사 성적을 지표로 해서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그게 증인에게는 장난입니까? 부정행위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 행위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강한은 소원이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거세게 몰아붙였다. 제 아무리 당돌한 성격이라지만, 그렇지 않아도 처음 와보는 형사법정, 더구나 살인 사건 증인이 되었다는 어마어마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소원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지영뿐이었다.

“이의 있습니다. 검사가 증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철회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라면 증인 아버지를 검찰 측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둘의 증언이 다르다면 둘 중 하나는 위증죄의 책임을 지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냐는 겁니다.”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는 강한의 신문에 지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나 고 판사는 아직까지도 강한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p69

않고 있었다. 마치 둘이 사전에 짜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때, 여태껏 수세에 몰리고만 있던 소원이 용감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제가 온유와 친하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면, 뭐 하러 굳이 법정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죠.”

“그렇군요.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강한은 소원의 반격에도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실물화상기에 있던 수사보고서를 치우고 또 하나의 증거물을 올려놓았다. 바로 사진이었다. 소원은 어떤 중년 남자와 맥도날드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자신의 옆모습을 사진 속에서 발견하고 당혹스러운 낯빛이 되었다.

“증인은 이 사진에 찍힌 것처럼 닷새 전, 성암역 얖 맥도날드에 범죄 르포 전문작가 최기준 씨를 만나서 면담한 사실이 있죠?”

“아뇨, 면담이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애기 좀 하자고 했어요. 햄버거를 사주기에 먹은 것뿐이고요.”

소원은 갑자기 이 사진이 왜 튀어나왔는지 몰라 당황해서 횡설수설했다. 그러나 강한은 애초부터 명확히 노리고 있는 바가 있었다.

“최 작가는 유명한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매수해서 알아낸 기밀정보로 책을 쓰고 팔아먹는다고 알려진 사람인데, 최 작가가 증인에게도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아뇨,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것저것 물어보긴 했는데 대답은 안 해줬어요. 아는 것도 없었고!”

소원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그 사람이 작가이고 이름이 최기준이라는 것도 방금 알았다.

닷새 전, 그가 학교 앞에서 교복 차림의 소원을 보고 잠시 얘기 좀

@@p70

하자고 해서, 그냥 기자 중 한 명인 줄 알았다. 싫다고 하면 분명이 다른 애한테 갈 테고, 그랬다가는 온유에 대해 안 좋은 애기만 잔뜩 나올 것 같아 차라리 일단 같이 가서 모른다는 말만 계속하자고 마음먹고 따라갔던 것이다. 그런데 사진이 찍힐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강한은 드디어 빌미를 잡은 사람처럼 맹공격을 퍼부었다.

“증인은 사건 초기에는 수사기관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와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피고인의 알리바이에 대해 증언하겠다고 나선 건, 증언 내용을 르포 작가에게 팔아 먹고 돈과 유명세를 얻을 목적이 아닙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절대 아니에요!”

소원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 끝장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증언도, 그리고 온유도. 판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포였다.

“이상, 반대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은 조 대표가 ‘두 번째 선물’이라면서 보내준 사진을 기록 속에 말없이 챙겨 넣으며 보일 듯 말 듯 미소 지었다. 소원은 그 미소가 자기가 살면서 본 것 중에서 가장 비열한 표정이라고 생각했다.

@@p71

@@{81

11월 4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 강한의 집.

“류뚱, 지금 몇 시야?”

강한은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중얼거리듯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직도 자는 건가. 게으른 녀석 같으니. 멍하니 그런 생각을 하던 강한의 의식에 불쑥 어젯밤 일이 떠올랐다. 소원과 싸운 것과, 한 경감에게 전화가 왔던 것까지도.

“아, 맞다. 한 경강님.”

강한은 다급하게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옷가지를 밟고서 그대로 쭉 미끄러졌다. 바닥으로 추락하듯 넘어지면서 침대 프레임에 턱을 세게 부딪혔다.

“윽!”

강한은 눈앞에 별이 보이는 것 같은 얼얼한 통증에 턱을 양손으로 감싸 쥔 채 몇 분 동안 괴로워했다. 어젯밤, 지나가던 순찰차에 의해 발견되어 간신히 집에 돌아온 것까진 좋았는데, 피로에 지친 나머지 뱀 허물 벗듯 훌훌 벗은 옷가지를 아무렇게나 던져버린 것이

@@p72

문제였다.

“그러고 보니까 그 녀석, 옷 한 벌 안 가지고 갔네. 그 고집에 제 집으로 들어갔을 리는 없고. 어쩌려고 그러지?”

강한은 어젯밤 어디서 잤을지 모르는 소원을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어린애도 아니고 스무 살이나 먹었고, 멀쩡하고 건강한 몸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나 싶었다.

강한은 소원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화장실까지 걸어가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린 다음 옷장이 있는 안방으로 돌아왔다. 아침 식사와 면도는 그냥 생략하기로 했다. 강한이 손을 뻗었을 때 바로 닿을 만한 높이의 선반에는 소원이 속옷, 셔츠, 바지, 양말, 이렇게 미리 맞춰놓은 사흘치 옷이 차례대로 개켜져 있었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좀 두꺼운 걸 입어야 할 것 같긴 한데……. 뭐, 얼어 죽진 않겠지.”

강한은 개중 맨 앞에 있는 옷가지들을 한 손으로 집으면서 무심히 중얼거렸다.

*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20분입니다.

침대 머리맡을 더듬거려 찾아낸 시각장애인용 탁상시계의 버튼을 누르자 안내음성이 흘러나왔다. 이 시계도 소원이 인터넷 쇼핑몰을 뒤져 찾아낸 거였다. 나 홀로 외출 준비를 마친 강한은 곧바로 장애인용 콜택시를 호출하고 집 앞으로 나가서 기다렸다.

장애인용 콜택시는 그 수가 많지 않은 만큼, 보통 한번 왔던 기사가 또 오는 경우가 많았다. 강한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 기사는 강한이 서 있는 자리까지 바짝 다가와 택시를 세웠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민첩하게 뛰어내려 뒷좌석 문을 열어주러 왔다.

“검사님? 오늘은 웬일로 혼자 나오셨네요. 학생은요?”

@@p73

“잠깐 어디 갔습니다.”

강한은 덤덤한 말투로 대답하고 택시 뒷좌석에 올라탔다.

“어디 갔다고요? 웬일이래요? 검사님과 껌딱지처럼 붙어다니더니.”

기사는 강한이 알려준 카페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차를 몰기 시작하면서 입담 좋게 떠들어댔다. 강한은 그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평소에는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좀 달랐다.

“제가 장애인 콜택시를 몬 게 벌써 5년인데, 그 동안 활동보조인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숱하게 봤단 말이죠. 솔직히 그 학생을 처음 봤을 때는 뭐 이런 어린애가 도움이 되겠나 싶었어요.”

“…….”

“그런데 보면 볼수록 애가 진국이더라고요. 겉보기와 달리 참 세심하게 잘 챙겨요. 예약 전화할 때마다 검사님이 빙 돌아갈 필요 없게 택시는 꼭 문 앞에다가 세워달라고 하고,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보이는 사람 불안하니까 시속 80킬로미터 이하로 몰아달라고 하고, 오가는 동안 검사님 쉬셔야 하니까 라디오나 트로트 음악은 틀지 말고 조용히 있어달라고 하고.”

“…….”

“아,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제가 수다를 너무 많이 떨었네요, 죄송합니다. 눈치 없이 그만.”

“아닙니다,”

강한이 차분한 말투로 대답하자, 택시 기사는 자발적으로 입을 다물고 운전에 열중했다.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강한은 휴대전화를 쥔 채로 잠시 고민했다. 어디에 있는 건지 물어보기라도 할까. 그러나 소원이 원하는 건 그렇게 어설픈 걱정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p74

오후 12시. 성암동 소재 카페 ‘윤’.

“강 검사님, 여깁니다!”

케인을 짚으면서 카페 안으로 들어서던 강한의 귀에 한 경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라는 말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었다. 강한은 잠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선 채 가만히 있었다. 목소리의 음량을 통해 대강 방향과 거리를 짐작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처음 와본 곳에서는 일단 움직이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걸 어젯밤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

“아이쿠,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한 경감은 강한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뒤늦게 알아차린 듯 서둘러 이쪽으로 다가왔다. 다짜고짜 팔을 잡아 자리로 데려가는 손짓이 우악스러웠지만 강한은 묵묵히 참아 넘겼다. 보행 안내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는 건 무리였다.

“저번에 그 학생은요? 같이 오지 않으신 겁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검사님 댁 근처로 약속 장소를 잡았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그건 그렇고, 기록에 남기지 않았던 진술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얘깁니까?”

강한은 곧장 용건으로 들어갔다. 피해자와 이런 식으로 검찰청 밖에서 만나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원칙에 어긋났다. 한 경감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충격적인 발언이 아니었다면, 강한은 절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 경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p75

“저, 경찰 그만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잘린 거죠. 도저히 사표를 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까지 몰렸으니까요. 이틀 전 동료들한테 마지막 인사하고 책상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뭐 그렇다고 인생 종 쳤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날 검사님이 다녀가신 후로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런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나 하고. 아, 혹시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다가 작년까지 썼던 업무 수첩을 찾았습니다. 휴대 전화로 메모하기 시작하면서 버린 줄 알았는데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패딩 주머니를 뒤지는 것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수첩 페이지를 팔랑팔랑 넘기는 소리. 한 경감은 바짝 마른 입술을 침으로 축여가면서 말을 이었다.

“그 놈이 처음으로 저를 덮쳤던 날이 9월 3일이었죠. 혹시나 해서 1년 전 9월 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피해 아동이 살해당하던 날, 수업 받았던 발레학원 있죠? 거기로 탐문조사를 갔더라고요.”

당연한 결론을 추론해서 묻는 강한의 말투는 침착했지만,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발레학원은 별하가 사건 직전 마지막으로 들렀던 장소였다. 심지어 발레학원 교사는 별하가 용의자와 함께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 조사 내용에 거짓이 섞여 있다면, 지온유 사건 수사에는 정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p76

것이 된다.

“일부러 보고하지 않은 건 아니고,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린애들의 망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망상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겁니까?”

강한의 질문에, 한 경감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다소 두서없이 얘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발레학원 선생님으로부터 별하가 남자 고등학생과 함께 가는 걸 봤다는 얘길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학생이 누군지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연습하고 있던 여자애들 몇 명이, 자기들은 누군지 안다고 했어요.”

“별하가 누구와 함께 갔는지 안다고 했다고요?”

강한은 누군가 등골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이전에 듣지 못했나 싶었다. 강한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한 경감도 알았는지, 주저주저 눈치를 보면서 말을 이어나갔다.

“이름이나 뭐 그런 걸 얘기해준 건 아니고요. 별하가 좋아하는 오빠라고 했어요. 6학년 수학여행 갔을 때 진실게임에서 얘기했다나? 잘생기고 공부도 잘한다고. 그 애기가 나오니까 아주 신이 나서 애기하더라고요, 친구가 죽은 상황에서. 하여간 애들이란.”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절대 지온유는 아니군요. 그 학생이 범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고인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더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습니까?”

“저기, 그게…….”

한 경감은 이 문답이 점점 신문조로 변해가는 게 불편한지 테이블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다.

@@p77

“안 그래도 물어볼까 생각했습니다. 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뭐냐 증인으로서의 가치, 그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민국 의원이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님이요? 발레학원에요?”

이 문맥에서 그 이름이 튀어나올 줄 몰랐던 강한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조 대표가 그 당시에 피해자 가족의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여기저기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레학원에까지 찾아가는 건 좀 너무 가지 않았나 싶었다.

“발레학원에 남아 있는 아이 물건을 대신 가지러 왔다고 하더군요. 아이 부모는 아이 물건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름만 들어도 못 견디는 상황이라고요.”

“아…….”

“제가 아이들과 애기하는 걸 조 의원이 옆에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철없는 여자애들이 상상을 부풀려서 멋대로 얘기하는 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피해 아동이 남자 고등학생과 불건전한 관계라고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책임질 거냐고요. 왜, 그렇지 않아도 그 사건을 둘러싸고 온갖 추잡한 얘기가 돌지 않았습니까.”

“…….”

강한은 침묵을 지키면서 생각에 잠겼다. 조 의원의 말이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었다. 옷을 입지 않은,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의 시신이 폐건물에서 발견된 사건은 남의 불행에 대해 떠들기 좋아하는 이들의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다.

누군가는 근거도 없이 아동학대를 의심했고, 뜬금없이 별하 아버지가 소아성애자라는 소문이 퍼지질 않나, 별하가 학교폭력의 주동

@@p78

자였고 살해 사건은 극심한 왕따에 대한 보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도 튀어나왔다. 더 웃긴 건 그 모든 가십이 아무런 여과 없이 인터넷 뉴스로 보도되었다는 것이다.

“듣고 나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딸 둘을 키워봐서 아는데, 그 나이대 여자애들은 상상하고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랑 자기가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하질 않나, 진지하게 결혼할 거라고 하질 않나. 그 말에 쉽게 휘둘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기로 마음먹은 겁니까?”

“그게, 제가 겪어봤잖아요. 이번에 뇌물 수사를 받으면서. 물론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얼떨결에 덤터기 쓴 것도 많단 말이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요, 한번 찍히고 나니까 아무도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한 경감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답답하다는 듯 하소연했다.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슴을 쥐어뜯었다니까요. 저도 범인이 지온유 사건 재수사를 요구한단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땐 화가 났죠. 꽐라가 될 때까지 술을 처마시고 집안 가구를 다 때려 부쉈다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미친놈처럼 날뛰는 와중에도 가슴 한구석에 뭔가 걸리더라고요. 혹시 내가 정말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나처럼 억울한,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낸 적은 없었나 하고.”

“…….”

“그래서 아주 조금의 잘못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치고 싶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죠. 제가 드린 정보를 검사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p79

그래도 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한 경감은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다한 듯 입을 다물었다. 강한 또한 한참 동안 태산 같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강한이 더는 뭔가 말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한 경감은 수첩을 다시 주머니 속에 주섬주섬 넣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때 강한이 문득 한 경감에게 물었다. 사건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다.

“일할 곳은 구했습니까? 가족은요?”

“먼저 은퇴한 친구 놈이 작은 보안업체를 운영하는데 와서 도와달랍니다. 월급은 쥐꼬리만 하지만 뭐, 자업자득이려니 해야죠. 그래도 마누라가 이혼만은 안 하고 넘어가주겠다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죠.”

“그렇군요.”

“제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검사님. 전 제가 잘못한 걸 갚으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이 저를 정신 차리게 해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게임장 주인들한테 뒷돈이나 받고 그 돈을 또 토토에 꼬라박으면서 부패한 형사로 한심한 인생을 살았겠죠.”

한 경감의 말끝에 희미한 웃음기가 배어났다. 뒤늦은 깨달음, 결단, 그리고 지울 수 없는 회한이 섞여 있는 쓰라린 웃음이었다.

@@p80

@@{82

11월 5일 월요일 오후2시. 성암여자중학교 운동장.

“패스, 패스하라고! 귓구멍이 막혔냐?”

“앞에 수비 있는 거 안보이냐? 지랄 좀 하지마, 미친년아!”

강한은 벤치에 앉은 채 운동장에 메아리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여자중학교라 가녀린 소녀들이 수줍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상상했던 것과 사뭇 달랐다.

20분 정도 기다렸을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벤치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의 숫자로 가늠해보자면 서너 명쯤? 이윽고 발소리가 멎고, 강한이 교무실에서 만났던 학생주임 교사의 음성이 들려왔다.

“검사님, 이 아이들입니다. 전부 세 명, 맞죠? 너희들, 검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뭐든지 사실대로 성의껏 대답해드려야 한다.”

뒷말은 강한이 아닌 학생들에게 한 말이었다. 학생주임은 학생들을 벤치 앞에 세워두고 잠자코 자리를 피해주었다. 그것도 강한이 미

@@p81

리 부탁한 일이었다.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서는 아무래도 편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을 감안한 것이었다. 학생주임이 사라지자마자, 허스키한 목소리의 여학생이 호기심에 가득 찬 질문을 던졌다.

“진짜 검사님이에요? 근데 눈이 안 보이세요? 어쩌다가요?”

“야,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실로폰처럼 낭랑한 목소리의 여학생이 재빨리 가로막았지만, 강한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강한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위선을 떠는 어른들보다,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대놓고 물어보는 아이들의 방식이 그에게는 훨씬 거부감이 덜했다.

“괜찮아. 눈에 염산이 튀어서 앞이 안 보이게 됐어.”

“아, 나 이분 누군지 알아. 뉴스에서 봤어. 작년에…….”

허스키 보이스가 뭔가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소리치자, 나머지 아이들이 일제히 헉, 하고 놀란 숨을 들이쉬는 게 들렸다.

“맞아, 내가 별하 사건을 수사했던 강한 검사란다. 바로 그 일로 너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너희들, 별하하고 같은 발레학원에 다녔지? 그 일이 있던 날도 별하를 봤고?”

“…….”

강한의 질문에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돌연 합죽이가 되어버렸다. 강한도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니었다. 발레학원에 전화해서 작년 수강생 중 별하와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다. 별하는 영원히 초등학교 6학년에 머물러 있게 됐지만, 그 친구들은 이제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다.

“너희들이 뭘 잘못했다는 건 아니니까 겁 먹을 필요 없어. 그때 발레학원에 탐문하러 온 형사님한테, 별하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다는

@@p82

말을 한 적이 있지? 그 얘길 자세히 듣고 싶은데.”

“그 때 형사 아저씨가 어디 가서 그 얘기 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 고소당한다고.”

이번에도 제일 먼저 대답한 건 허스키 보이스였다. 강한은 그 아이가 이 집단에서 주도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다.

“너희들이 나한테 애기했다는 건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말해도 돼. 뉴스를 봤다면 알겠지만, 지금 누군가가 별하 사건을 핑계 삼아서 사람들을 해치고 있어. 그래서 아주 사소한 정보라도 꼭 필요한 상황이야.”

다시 한번 침묵이 이어졌다. 강한은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 마주 보면서 입을 벙긋거리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것 같았다.

‘네가 말해.’

‘내가 왜? 네가 말해.’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고 있을 게 분명했다. 강한은 이번에도 허스키 보이스가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저희도 자세히 아는 건 아니에요. 그 오빠 얼굴도 몰라요. 진실게임 할 때 ‘예스 또는 노’ 다섯 개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고백했는데, 그 때 들었던 게 다예요.”

* 그 사람은 나이가 많아? 예스.
* 잘생겼어? 예스, 예스.
* 키 180센티미터 넘어? 노.
* 공부 잘해? 예스, 예스, 예스.
* 같은 동네 살아? 예스.

@@p83

별하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날요, 별하 생일이었잖아요. 학원에서 간식 먹으면서 별하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날 그 오빠가 만나러 와주면 좋겠다고. 그러다가 수업 끝나고 다들 집에 갈 준비를 하는데, 개가 창 밖을 보더니 갑자기 그랬어요. 그 오빠가 진짜로 왔다고. 자기 어떡하냐고.”

“진짜로 왔다고?”

“네, 근데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어요. 우리 부럽게 만들려고. 솔직히 나이 많고 잘생긴 오빠가 초딩한테 왜 관심을 가지겠어요? 여중이나 여고에 가면 예쁜 언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별하가 우산도 필요 없다고 뛰쳐나가는 거 보고 다들 웃었어요. 괜히 엉뚱한 사람 보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너희 중에 혹시 그때 왔던 오빠를, 실제로 본 애가 있니?”

강한은 1년 전 한 경감이 직접 했어야 할 질문을 던졌다. 혹시 몰라서 지난해 성암고등학교 졸업앨범과, 현재 2학년, 3학년 학생들의 운동회 단체사진까지 받아 왔다. 목격자가 있다면 얼굴을 확인해달라고 할 작정이었다. 아이들이 대답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와중에, 아가의 그 실로폰 목소리를 가진 여학생이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저…… 제가…… 별하가 나간 다음에 궁금해서 창 밖으로 내다봤었어요. 진짜 그 오빠가 온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별하가 어떤 남자랑 같이 우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소녀는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막연히 직감한 듯 떨고 있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과장된 말투는 느껴지지 않았다.

“얼굴은 못 봤어요. 우산에 가려져 있었어요. 우산을 들고 있는 팔이랑 그 아래만 보였어요. 비에 젖었는지 옷소매를 걷고 있었는데,

@@p84

팔꿈치에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하지? 그거, 막, 오돌토돌한 거. 좀 징그럽고. 데었을 때 생기는 거 있잖아요.”

“화상 자국?”

강한은 자신의 선글라스 아래 얼룩지듯 남아 있는 흉터를 떠올리면서 물었다.

“아, 네, 그거요. 그게 기억에 남았어요.”

소녀는 겁먹은 듯 말했다.

“너희들 방금 이 얘기 나 말고 다른 누구한테 한 적 있어?”

“화상 자국 얘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실로폰 목소리의 소녀가 곧바로 대답했다. 잠시 후, 허스키 보이스 소녀의 대답이 더해졌다.

“진실게임 얘기는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에요. 성당에서 별하 추모예배를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끼리 그 오빠는 어떻게 됐을까 얘기하고 있었는데, 뒷자리에 앉은 어떤 아줌마가 우리 얘길 듣더니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별하 이모라고, 별하가 좋아했던 사람이 궁금하다고.”

강한은 ‘이모’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별하의 이모뻘이었다면 적어도 삼십대, 아니면 사십대 중년 여성이라는 얘기였다. 어쩌면 연쇄 상해 사건의 용의자와 같은 인물일지도 몰랐다.

“별하 이모라고?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있어? 어떻게 생겼는지?”

“음…… 키가 컸어요. 머리는 짧은 편이었고. 어디 아픈 사람같이 되게 말랐어요.”

강한은 별하의 진짜 이모를 실제로 본 적이 있었다. 얼굴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키가 작고, 예쁘장하고, 적당히 살이 오른, 근심 걱

@@p85

정 없이 잘사는 부잣집 사모님 느낌이었던 게 기억났다. 중년 여성이라면 8개월 동안 살은 빠질 수 있어도 갑자기 키가 클 수는 없었다.

‘급 높은 구두를 신으면 가능하겠지만, 추모예배에 그런 걸 신고 왔다간 대번에 눈에 띄겠지.’

소녀들이 만난 인물이 별하의 이모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로써 분명해졌다. 강한은 그게 온유의 친모일 거라고 생각했다. 온유가 진범이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도 죽은 아이를 추모하는 마음에서 몰래 예배에 참석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참석한 것일지도 모르고. 생각에 잠겨 있는 강한을 향해 실로폰 목소리의 소녀가 한마디 덧붙였다.

“아, 그리고 가슴에 금색 브로치를 달고 있었어요. 꽃잎이 두 개 달린 거요. 특이하고 예뻤는데.”

“금색 브로치?”

꽃 모양으로 생긴 금색 브로치를 단 여자. 강한은 지금까지 어슴푸레하기만 했던 범인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저녁 8시. 강한의 집 앞.

“소원이 도망갔다고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와봤을 거 아니야.”

유미는 집 앞에 차를 세우면서 투덜거렸다. 강한은 퇴근하고 오는 길 내내 이 문제로 귀가 닳도록 잔소리를 들었다. 강한은 네가 올 게 뻔해서 얘기 안 한 거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더 심한

@@p86

잔소리가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잠자코 있었다.

“그러지 말고 전화해서 사과하고 화해해. 더럽고 치사해도 좀 참고. 성질 죽이고. 선배한테는 그 애가 필요하잖아. 활동보조인 신청한 건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면서.”

“그 녀석이 나한테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야. 결단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어.”

강한은 짤막하게 대답하면서 차문을 열고 내렸다. 얼른 운전석에서 내린 유미가 쪼르르 그를 따라왔다. 강한과 함께 집으로 들어간 유미는 단 이틀 사이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집 안을 보면서 입을 떡 벌렸다.

“용케도 이러고 살았네. 그 동안 류소원이 한 일이 많긴 많았나 봐. 집 안이 순식간에 이 지경이 된 걸 보니까.”

강한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은 채 재킷을 벗으며 욕실로 향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온 집 안에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김치볶음밥 냄새였다. 유미는 여기저기 음식물이 떨어지고, 물이 엎질러지고, 배달음식 용기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부엌을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정리하면서 강한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와서 앉아.”

“나 목욕가운 차림인데.”

“뭐 어때? 벗은 것도 아니고. 벗었다고 해도 별로 관심 없어. 식기 전에 와서 먹기나 해.”

유미의 무심한 말투에 강한은 고개를 끄덕여 수긍하면서 테이블에 가서 앉았다. 유미는 흘리지 않도록 우묵한 그릇에 담은 김치볶음

@@p87

밥을 그의 앞에 놓고, 자기 몫으로도 한 그릇 담아서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닌데 같은 타이밍에 숟가락을 집어 들고, 꽤나 닮아 보이는 동작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선배, 당분간 내가 여기서 지낼까? 출퇴근 같이하고. 소원이가 쓰던 방 내가 쓰면 되잖아.”

“됐어.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골치 아파.”

“뭐 어때. 이제 약혼한 상태도 아니잖아.”

유미는 조금 뾰로통한 말투로 받아쳤다. 그녀는 착각하고 있었다. 강한은 사실 자신이 아니라 유미를 걱정하는 거였다. 혹시나 자신과 유미의 관계가 소문나면 그녀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데 지장이 있을까봐. 법조계는 매우 좁고 소문이 빨리 도는 곳이었고 그만큼 인간관계를 맺는 데 지극히 보수적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강한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여진과 파혼하고 소원도 떠나버린 지금, 유미가 집에 들어온다면 그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라는 것을. 그녀와 연인으로 지낸 세월이 9년이었고 헤어진 지는 이제 고작 1년이었다. 지금도 이렇게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으면 우리가 정말 헤어졌었나 싶었다.

‘정안인일 때는 집안 좋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버려놓고, 시각장애인이 되니까 다시 만난다고? 여자한테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강한은 여러 가지 염려를 구구절절 애기하는 대신,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무미건조한 투의 농담을 던지는 것으로 난처한 상황을 넘겨버렸다.

“김치볶음밥밖에 만들 줄 모르는 여자와 같이 살 생각 없어.”

@@p88

“뭐야, 언제는 내가 해주는 김치볶음밥이 5성급 호텔 셰프가 해주는 음식보다 맛있다더니.”

“그때는 사귀는 사이였으니까 도의적인 립서비스를 해준 거고.”

“그러면 류소원은? 걔는 요리도 하나도 못하는데 걔랑은 잘 살았잖아. 난 선배가 누구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거 처음 봤어.”

강한은 유미의 그 말에 배어나는 질투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사실 그도 어리둥절했다. 류소원이 뭐라고, 대단할 게 뭐 있다고, 그 녀석 하나 없어졌다고 이렇게 집 안이 텅 빈 기분이 드는지. 강한은 뻐근하게 메어오는 목구멍에 김치볶음밥을 쑤셔넣으면서 중얼거렸다.

“걔는 그냥 친동생 같아. 말 더럽게 안 듣고, 나와 달리 공부도 못하는. 그런 주제에 쓸데없이 마음만 여린 막냇동생.”

@@p89

@@{83

11월 7일 수요일 오후 1시. 고 김별하의 집.

“그런데 주인도 없는 집에 들어가도 되는 거야? 절차 밟아서 압수수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유미는 강한이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키패드에 누르면서 불안감 섞인 투로 물었다. 어서 들어오라는 듯 곧바로 문이 열렸지만, 선뜻 들어가기가 망설여졌다. 도둑질도 아닌데도 도둑질하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다.

그런 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강한은 오히려 거침없었다. 그는 텅 빈 신발장을 케인으로 더듬더듬 짚으면서 앞장서서 안으로 들어갔다.

“별하 아빠와 통화했어. 와주면 좋겠다고 정중히 얘기했는데, 이 집에 오면 딸 생각이 나서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을 것 같대. 고향에 내려가 살면서 간신히 사람 구실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뭘 더 어떻게 요구하겠어. 아이 방에 들어가서 뒤져보라고 허락해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p90

강한은 멀쩡한 집을 비워둔 채 시골집에 살고 있는 별하 아빠와 통화했던 것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강한의 이름을 듣자마자 애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했다. 강한이 다급하게 뉴스 보셨냐고, 사건 관련자들을 타깃으로 한 연쇄 상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실명까지 당했다고 말하자, 별하 아빠는 자시 침묵을 지키다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

* 그게 뭐 어때서요. 전 13년 동안 볕에라도 델까, 바람에라도 쓸릴까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딸아이를 잃었습니다. 우리 별하가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제 눈 같은 건 백 번 천 번 기쁘게 잃을 수 있습니다. 검사님은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실 겁니다.

그 말투에서 강한은 별하 아빠가 뉴스와 신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이미 들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진심이었다. 설령 지온유가 진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 하더라도, 딸이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그는 그 문제에 상관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아니, 1년간 정신착란에 가까운 절망에 시달리면서 상관할 기력조차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몇 년간은 돌아오지 않을 작정으로 다 들고 이사 갔나 보네. 현관에도 거실에도 주방에도 가구나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

유미의 설명이 아니어도, 강한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빈 집 안에서 훅 끼쳐오는 냉기만으로도 대충 그려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리 와봐, 선배. 여기가 별하 방인가 봐. 여기만 그대로 남아 있어.”

강한은 케인으로 앞을 확인하면서 유미가 그를 부르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빈집이라 장애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좋았다.

@@p91

유미가 손을 잡고 이끄는 대로 문간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가자, 확실히 바깥과는 공기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침대엔 이불이 덮여 있고, 옷장 손잡이에는 발레복이 걸려 있어. 그 아래에는 토슈즈도 가지런히 모아놨네. 책상에는 초등하교 6학년 교과서가 꽂혀 있고. 의자에 놓인 방석이 흐트러진 것까지 그대로 놔뒀어. 금방이라도 여자아이가 ‘학교 다녀왔습니다’하고 뛰어들어올 것처럼.”

유미는 별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방을 둘러보면서 조금 쓸쓸한 투로 말했다. 그러나 감상은 감상이고 일은 일이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안에서 비닐장갑을 꺼내서 끼었다. 이미 1년 전에 증거수집이 끝난 사건이고, 여기가 사건 현장도 아니므로 불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만인을 대비해서였다.

양손에 장갑을 낀 유미는 옷장 쪽으로 다가가면서 강한에게 물었다.

“여기서 뭘 찾아야 해, 선배? 웬만한 건 다 별하 엄마 아빠가 들여다봤을 것 같으넫.”

“뭐든지. 그 오빠라는 녀석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라면. 몰래 간직한 사진 같은 거 없을까?”

“요즘 애들이잖아. 사진은 휴대전화에 없었다면 없는 거야. 차라리 교환 일기장이나 비밀 일기장 같은 걸 찾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유미는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 옷 사이사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그 말에 강한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직도 일기를 쓰는 애들이 있어? 그런 건 우리 때나 썻지. 다

@@p92

SNS 하느라 바쁘지 않나?”

“에이, 그거야말로 선배가 모르니까 하는 얘기지. 여자애들 마음은 세대를 막론하고 다 똑같아. 알록달록 예쁘게 꾸민 일기장에, 말린 꽃도 붙여놓고, 색색의 펜으로 아무도 모르는 비밀 얘기를 적고 싶은 거라고. 그러다 보면 꼭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

“너도 그랬어?”

“……옷장에는 별거 없는 거 같네. 침대를 뒤져볼게.”

유미가 괜히 말을 돌리자 강한은 소리 없이 피식 웃었다. 유미는 어린애들이 물건을 숨겨놓을 만한 곳은 다 찾아보았다. 베개 커버 안, 매트리스 사이, 침대와 벽 사이의 틈새, 침대 밑바닥, 창틀 사이. 계속해서 커튼을 들춰보고 책장에 꽂힌 책도 하나씩 다 열어보았지만 별다른 걸 발견할 수 없었다.

드르륵- 탁. 드르륵- 탁.

유미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하면서 실망한 듯 말했다.

“그냥 학교에서 쓰는 학용품과 노트뿐이야. 친구들한테 받은 생일 카드나 크리스마스 카드도 있고. 반짝이 풀이 엄청나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유미는 마지막 세 번째 서랍까지 열어보고 나서 다시 닫았다.

드르륵- 턱.

“잠깐만.”

강한이 손을 허공으로 뻗으면서 말했다. 앞의 두 서랍을 닫을 때와 마지막 서랍을 닫을 때의 소리가 묘하게 달랐다. 뭔가 둔탁하고 시원스럽지 못한 느낌이었다.

“그 서랍, 뒤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p93

“뒤쪽?”

유미는 덜커덩 소리가 나도록 서랍을 밖으로 빼낸 다음 깊은 구석까지 손을 집어넣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허공에서 계속 손을 휘젓다 보니 뭔가가 손가락 끝에 걸렸다. 유미는 바스락거리는 그 물건을 재빨리 잡아채서 밖으로 꺼냈다. 꽃 모양 일러스트가 그려진 작고 얇은 공책이었다.

“일기장이네. 정말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읽어봐. 전부 다 소리 내어 읽지는 말고, 네가 먼저 눈으로 읽어 보고 중요할 것 같은 부분만.”

강한의 말에, 유미는 일기장을 첫 장부터 눈으로 빠르게 훑어내려 가기 시작했다. 매일 수천 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읽는 검사에게 초등학생의 일기장 내용을 파악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

“주로 친구들 얘기야. 이 나이 때는 학교와 친구가 세상의 전부니까. 가끔 가족들 얘기도 나오고. 무척 사이 좋은 가족이었나 봐.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산타 분장을 하고서 선물 준 얘기, 엄마랑 쇼핑하고 아이스크림 먹은 얘기,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얘기도 있네. 별하한테 언니가 있었어? 전화가 왔다는 걸 보니까 따로 사는 것 같은데?”

유미는 일기장의 어느 한 페이지를 펼친 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강한은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눈가를 찡그리면서 대답했다.

“어, 아마 있었을 거야. 나도 본 적은 없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미국에서 어학연수 중이라고 했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부모가 한국에 못 들어오게 했어. 기자들한테 너덜너덜 물어뜯길 게 뻔해서. 큰딸의 존재를 아예 숨기려고 했지. 나중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그게 현명한 선택이었고.”

@@p94

강한은 별하의 가족을 둘러싸고 인터넷상으로 퍼져나갔던 온갖 지저분한 소문들을 떠올리면서 대답했다. 유미는 처음 듣는 얘기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난 전혀 몰랐네. 언니 이름은 뭐였는데?”

“나도 확실히 기억나는 건 아닌데 아마 별하랑 비슷한 이름이었을 거야. 돌림자처럼.”

“그러면 그 언니라는 애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냐? 동생에 대해 더 알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별하가 누굴 좋아했는지 알지도 모르고. 원래 자매들끼리는 그런 비밀을 공유하기도 하니까.”

유미는 새롭게 알게 된 정보에 조금 들떠서 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강한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 나이 많은 언니고, 어학연수 간 지 몇 년 됐다고 했으니까 그런 비밀까지 알진 못했을 거야. 그러고 큰딸에게 접촉을 시도했다간 별하 부모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테고. 지금도 마찬가지일걸?”

강한은 별하의 부모가 큰딸을 동생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아무리 막아도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몰려올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그때도 그들의 예측은 들어맞았다. 성당에서 비공개로 치러진 장례식에 신자로 위장한 기자들이 카메라를 숨겨 들어와 영상을 촬영하고, 심지어 유족들에게 인터뷰까지 시도하는 바람에 장례식이 엉망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별하 사건이 끝나고 나서 공중파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르포 서적도 나오고, 심지어 그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까지 출간됐지만 누구도 별하 언니에 대해서는 몰랐잖아. 그게 다 별하 부모와 조 대표가 철저하게 막아서 그래.”

“그런가. 그래도 피해자 가족을 전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난 마

@@p95

음에 걸리는데……. 어, 잠깐! 여기 흥미로운 게 있어.”

공책을 팔랑팔랑 넘기던 유미가 다시 어느 한 페이지를 펼쳐놓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K를 만났다. 어디 가느냐고 물어서 미술학원에 간다고 했더니 열심히 하라고 해줬다.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귀엽다고 했다. 아직도 내가 어린애로만 보이나 보다. 속상하다. 어휴, 별하야. 네가 어린애지 그러면 어른이야?”

“그게 다야? 다른 건 없어?”

“음, 이 페이지는 이게 끝이고…… 더 찾아볼게. 여기도 있네. 올해 생일 파티는 주말에 하기로 했다. 엄마가 부르고 싶은 사람을 부르라고 했는데, K는 안 되겠지?”

유미는 그 문장을 읽는 것을 마지막으로 탁 소리 나게 노트를 덮었다.

“이게 끝이야. 애초에 페이지 수가 많지 않아. 쓰다가…… 음, 쓰다가 멈췄으니까.”

유미는 별하의 죽음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돌려 말했다. 강한은 실망하지 않았다. 그 짧은 문장들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게 꽤 있었다. 별하가 좋아했던 남학생의 이니셜이 K라는 것. K는 별하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어릴 때부터 별하를 보아왔을 거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하의 엄마는 별하가 K를 좋아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까지.

“이제 나가자. 여기서 더 찾을 건 없을 것 같다. 일단 일기장은 검찰청으로 가져가고.”

강한은 조심스럽게 걸터앉아 있던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유미를 향해 말했다. 유미가 바스락거리면서 비닐장갑을 벗는 소리가 들렸

@@p96

다. 그녀는 서류가방을 열고 미리 준비해온 증거물 봉투에 일기장을 넣었다. 그러고 강한을 따라서 방을 나서려다가, 잠시 우뚝 멈춰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을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얌전하게 놓여 있는 토슈즈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한은 아까와는 달리 서늘하게 가라앉은 그녀의 기분을 느끼고서 짤막하게 물었다.

“왜?”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사를 가면서도 죽은 아이의 방은 건드리지 못하는 부모의 슬픔이라는 게. 거기에 끝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할까?”

“…….”

“있잖아, 오빠. 검찰청에서 일하면서 가끔 아이가 죽거나 다치는 사건을 보면, 난 무서워져. 이 세상은 이렇게나 위험하고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아이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잖아. 내 능력으로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겁나.”

“검사인 네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누가 지키겠어.”

“그런가.”

강한의 말에 유미는 조금 씁쓸하게 웃어 보이더니, 강한의 옷소매를 잡으면서 떠보듯이 물었다.

“오빠는 어때? 자식 낳고 싶지 않아? 결혼을 누구랑 할지 그 문제는 제쳐두고서라도, 그냥 오빠 닮은 아이 말이야.”

“난 싫어.”

강한은 생각해보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단칼에 대답했다. 유미는 그 냉정함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렸다.

“왜? 눈 때문에?”

@@p97

“아니, 그건 상관없어. 아이는 사랑 받으면서 커야 하잖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아는 거지. 난 그걸 배운 적이 없어서 해주지도 못해.”

강한은 무척 슬프고 비참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무심한 투로 던져놓았다. 그리고 유미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은 사이, 케인으로 앞을 툭툭 짚으면서 거실로 나갔다. 태산처럼 넓은 등 너머로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게 들려왔다.

“그래도 만일 낳게 된다면, 소원이 같은 아들 녀석이면 좋긴 하겠네. 말은 더럽게 안 듣겠지만 심지도 굳고, 은근히 생각도 깊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 말을 들은 유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소원에 대한 강한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제대로 알게 되었던 것이다.

@@p98

@@{84

저녁 9시. CJ편의점 성암지방법원점.

“어서 오세요.”

딸랑딸랑, 종소리와 함께 아르바이트생의 맥 빠진 목소리가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다. 유미는 또각또각 구둣발 소리를 내면서 카운터 바로 앞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스머프처럼 새파란 조끼를 입고 있는 소원을 쳐다보면서 한심하다는 듯 물었다.

“기껏 패기 있게 뛰쳐나와서 온 데가 여기야?”

“누나?”

카운터에 팔을 괴고 반쯤 드러눕다시피 앉아 있던 소원이 상체를 벌떡 일으키면서 부르짖자, 유미는 눈살을 가볍게 찡그리면서 호칭을 정정해주었다.

“정 검사님.”

“정 검사님 누나. 아르바이트생한테 반말하시면 안 돼요.”

“커피 하나 줘.”

“여기가 카페도 아니고, 캔커피, 봉지커피, 커피 아이스크림에 커

@@p99

피맛 사탕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알아요? 편의점의 모든 것은 셀프, 가서 가지고 오세요.”

소원이 당돌하게 말하자, 유미는 카운터 바로 옆에 있는 음료수 냉장고로 가서 캔 커피를 하나 집어왔다. 유미가 캔 커피를 카운터에 내려놓자마자 소원은 거의 기계에 가까운 손놀림으로 바코드를 찍으면서 물었다.

“1500원입니다. 봉투 필요하세요?”

“밤에는 여기서 시간 때우고, 낮에는 어디서 자는 거야? 찜질방? PC방?”

“영수증 드릴까요?”

“계속 이러고 살 거야? 선배네 집으로 안 돌아가?”

소원은 유미와 서로 대답은 안 하고 질문만 해대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는지 이마를 벅벅 긁으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때그때 발길 닿는 데서 자고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그 집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영등포역 뒷골목에 가서 왕첸 아저씨하고 짝짜꿍하면서 사는 게 백배 낫겠어요.”

소원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내미는 유미에게 카드 단말기를 손짓해 보이면서 말을 이었다.

“누나도 이제 그 인간 걱정은 그만해요. 둘이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 맞죠? 인성이 너무 쓰레기라서 누나가 먼저 찬 거 아니에요? 할 만큼 하였으니 죄책감은 그만 느끼시고 깔끔하게 새 출발 하세요. 세상에 좋은 남자 많아요.”

“…….”

유미는 자기가 차인 거라는 진실을 굳이 밝히지는 않았다. 대신 편의점 구석에 쌓여 있는 초록색 우유 상자를 하나 가져다가 카운터

@@p100

앞에 엎어놓고 그걸 의자 삼아 걸터앉더니, 방금 구매한 캔 커피 마개를 땄다. 그걸 본 소원은 두 눈을 치켜떴다.

“이보세요,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업무방해라고요. 드실 거면 저기 컵라면 먹는 곳에 가서 드세요.”

“업무방해란 말도 적절하게 쓸 줄 알고, 서당개 3년이면 진짜로 풍월을 읊는구나.”

“누나, 지금 저보고 개라고 하신 거예요?”

유미는 그 말에 대답은 안 하고, 커피를 한 모금 홀짝 들이켜면서 독백하듯 말했다.

“선배가 원래부터 성격이 지금 같았던 건 아니야.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연수원 다닐 때까지도 과묵하고 고집이 세긴 해도 차갑거나 무심하진 않았어. 오히려 은근히 다정하고 안 보이는 데서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지. 내가 언제 어떻게 선배를 좋아하게 됐는지 알아?”

“그냥 얼굴 잘생기고 몸 좋은 거 봤을 때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소원의 이죽거림에도 유미는 굴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신입생 환영회를 갔는데 말이야. 그날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 우리 학교는 언덕이 많아서, 꽁꽁 얼어붙으면 걸어 다니기 힘들었거든. 근데 난 무모하게도 높은 구두를 신고 간 거야.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예쁜 애들은 구두를 신든 운동화를 신든 예뻐요.”

“신입생 환영회가 끝나고 다 같이 뒤풀이하러 간다고 언덕을 내려가는데, 모델처럼 우아하고 도도하게 걸으려고 하다가, 그만 빙판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어. 그것도 진짜 웃기게. 탈춤 추는 것처럼 어깨하고 팔을 막 흔들고, 시조새 같은 소리를 내면서, 트리플 악셀 하듯 빙글빙글 돌다가 꽈당 엉덩방아를 찧었어”

@@p101

“으, 듣기만 해도 쪽팔려서 죽을 것 같아.”

“보고 있던 애들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지. 꽈당녀라고 즉석에서 별명도 붙여주고. 동영상으로 못 찍어둔 게 아깝다고. 웃고 떠드느라 누구 하나 일으켜주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 너무 창피하고 아프고 서러워서 눈물이 찔끔 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인사 한 번 해보지 않은 3학년 선배가 불쑥 뒤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괜찮냐고 물으면서 손을 내밀어줬어.”

유미는 스물두 살 강한의 모습을 떠올리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지금처럼 키 크고 어깨 넓고, 외모는 앳되었지만 풍기는 분위기가 다른 선배들과 달리 사뭇 어른스러웠다. 유미가 얼떨결에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자, 그는 그녀를 가뿐하게 일으켜 세워주고 코트에 묻은 눈과 진흙을 털어주었다. 그리고 웃고 있는 애들을 차분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 너희들, 웃지 마. 사람 다치는 건 재밌는 일이 아니야.

유미는 그때 첫눈에 반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경험했다. 공부하느라 바빠서 연애에는 관심 없다는 대학생 겸 고시생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부지런히 쫓아다닌 지 장장 10개월 만에, 강한은 공부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녀를 받아들였다.

“다들 내가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어. 근데 그거 알아? 강한은 공부도, 일도, 운동도 열심히 하는 만큼 연애도 성실하게 하는 남자였어.”

강한은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유미가 그를 필요로 할 때는 어김없이 나타나주었고, 피곤한 날에도 끝까지 앉아서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아무리 예쁜 여자가 접근해도 돌은커녕 먼지만도 못하게 취급한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강한을

@@p102

만나는 동안, 유미는 자신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저렇게 됐어요?”

어느새 유미의 이야기에 관심이 생긴 소원은 카운터에 턱을 괴고 그녀를 향해 슬쩍 몸을 기울이면서 물었다. 유미는 갑자기 목이 마른 듯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나서 작게 말했다.

“선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요?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소원은 강한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집 안에 사진 한 장 없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 엄마처럼 이미 세상에 없는 존재려니 생각했던 것이다. 유미는 캔을 쥐고 있던 손에 지그시 힘을 주면서 대답했다.

“아주 옛날부터 선배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대.”

어느새 소원은 이죽거리거나 끼어드는 것을 멈추고 유미의 얘기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술에 잔뜩 취해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명함이랑 사진을 보여줬대. 그걸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찾아가도 될까, 안 될까, 어린 나이에 혼자서 엄청나게 고민한 거야.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대.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란 사람의 회사를 찾아가본 거야. 그런데 난 너 같은 거 모른다고 외면당했고.”

“…….”

“어머니의 병세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권투를 그만뒀대.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죽어라 공부했는데, 어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진 거야. 수술비 나올 데가 없으니까, 결국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p103

“근데 또 무시당했어요? 그 아버지란 작자한테?”

“무시만 당했으면 다행이지. 회사에 찾아가도 안 만나주니까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남기고 집 앞에서 얼쩡거리고 그랬나 봐. 그럴 수밖에 없잖아. 수술 안 하면 엄마가 돌아가신다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그 사람 본처라는 여자하고 마주치는 바람에 흠씬 두들겨 맞고 쫓겨났대.”

“두들겨 맞아요? 형이요?”

소원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강한이 다른 사람에게 얻어맞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며칠 전 강한에게 주먹을 날리긴 했지만, 그건 강한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의지가 없었기에 가능했다는 걸 소원은 알았다. 유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을 이었다.

“응,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큰길가에서. 교복이 찢어질 정도로 심하게 맞고 구둣발에 등을 밟히기까지 했대. 하지만 여자를 때릴 수는 없어서 그냥 참았다고.”

유미가 강한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귄 지 4년이 지나서였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면서 유미는 당연히 강한과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지만, 그는 결혼의 ‘결’ 자도, 실수로라도 꺼내는 법이 없었다. 자기 부모님을 만나줬으면 한다는 유미의 부탁을 강한이 단칼에 거절하는 바람에, 둘은 사귀고 나서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난 심지어 오빠 부모님이 어디에 사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래서는 남하고 다른 게 뭐야? 날 정말 여자친구로 생각하기는 해?”

유미는 그 동안 강한으로부터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

@@p104

지 못했던 섭섭함을 토로하면서 이럴 거면 차라리 헤어지자고 말해버렸다. 공부도 때려치우고 연수원에 출석도 안 한 채 사흘 낮밤을 이불 속에서 울면서 지새웠을 때, 절대 술에 취하는 법이 없는 강한이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리고 방금 유미가 소원에게 해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별로 아프진 않았어. 그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소름 끼치게 싫었을 테니까,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어. 그 여자보다는, 말릴 생각도 하지 않고 마치 남 일 보듯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그 여자 남편이 더 미웠지.”

강한은 절대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사람’ ‘그 인간’, 아니면 ‘그 여자 남편’이었다. 유미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마치 어제 일처럼 분노에 가득 차 그날 일을 되새기는 강한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 수술을 받지 못한 그의 어머니는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 사람은 대기업 부장 직함을 달고 있었어. 그래서 결심했지. 대학을 가야겠구나. 좋은 대학 좋은 과에 가서 그 사람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래서 강한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했고, 마찬가지로 수석에 가까운 성적으로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사법 연수원과 군법무관 과정을 거쳐 검찰청에 들어갔다. 강한과 두 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군법무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유미는 그와 얼추 비슷한 시기에 검사가 되었다. 그리고 강한이 변하는 과정을 옆에서 생생히 지켜보았다.

“첫 임지 발령을 받은 뒤, 어머니를 모시고 관사에 살게 되면서 선배는 마음을 좀 놓는 것 같았어. 유해졌다고 해야 하나. 휴가를 받게

@@p105

되면 멀리 여행을 가보고 싶다는 얘기도 했어. 그런데 바로 그때 아버지를 다시 마주치게 된 거야. 그것도 이번에는 검사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의 발단은 강한의 검사실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다. ‘그 사람’은 강한에게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회사에서 회계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고발당했으니 잘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뻔뻔한 부탁을 해왔다. 마침 사건을 맡게 된 검찰청이 바로 강한의 검찰청이었던 것이다.

“헐, 진짜 못돼 처먹었네요. 모른 척할 땐 언제고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갑자기 아들이에요?”

소원은 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먹을 불끈 쥐면서 분노했다. 유미도 그 당시 지금의 소원처럼 분개했었다. 그러나 정작 강한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꼭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처럼.

“선배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모든 걸 샅샅이 조사해서, 기존의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배임, 탈세, 주가 조작 혐의까지 밝혀냈어. 덕분에 원래는 벌금 수준에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 뉴스에 나올 만큼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선배 아버지는 징역 8년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갔어.”

“…….”

“그때부터야. 그때부터 선배가 지금 같은 성격으로 변했어. 자기는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걸, 결함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자기가 너무 심했던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을 없애려고,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우기는 버릇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유미는 어느새 텅 비어버린 커피 캔을 손가락 끝으로 톡톡 두드리

@@p106

면서 말했다.

“사실 이유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지. 자기 자신을 너무 빡빡하게 몰아세우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기준을 요구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필 여유가 없어진 거야.”

소원은 아무리 피곤한 상태에서도 일이 남아 있으면 절대 자지 않던 강한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미는 커피 캔을 내려놓고 소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난 사람의 근본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 그래서 선배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어. 어쩌면 이번 사건이, 그리고 너와의 만남이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절절매는 걸 보고, 실은 정에 약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긴 했어요.”

소원은 저도 모르게 생각했던 바를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은 유미의 눈이 확 커졌다.

“선배 어머니를 만났어? 알코올중독 클리닉에서?”

“알코올중독 클리닉이요? 의식도 없는 분이 어떻게 술을 마셔요?”

그 후 몇 분 동안이나, 둘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얼빠진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p107

@@{85

11월 8일 목요일 아침 7시 30분. 강한의 집.

* 아침 7시 30분입니다.

강한은 휴대전화에서 흘러나오는 알람 메시지를 듣고 눈을 떴다.